



폐경기를 맞은 여성을 위해-
얇고, 투명한 Matrix Type의 경피흡수제-
삼양에스트란 패취



삼양에스트란 패취는 얇고 투명한 Matrix Type의 이상적인 제형으로 점착력이 우수하며, 피부 자극이 거의 없어 연약한 여성의 피부에 더욱 적합합니다.

Consistent estradiol levels across the dosing period



**삼양에스트란 패취의 특징,
하나하나 따질수록 만족스럽습니다!**

- 혈중 estradiol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 1주 2회 투여로 폐경기 증상을 지속적으로 치료·예방합니다
- estradiol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부작용이 적습니다
-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 환자에게 더욱 안전합니다
- 에탄올이 들어 있지 않아 피부자극(2.2%)이 거의 없습니다
- 점착력이 매우 우수하며, 제거시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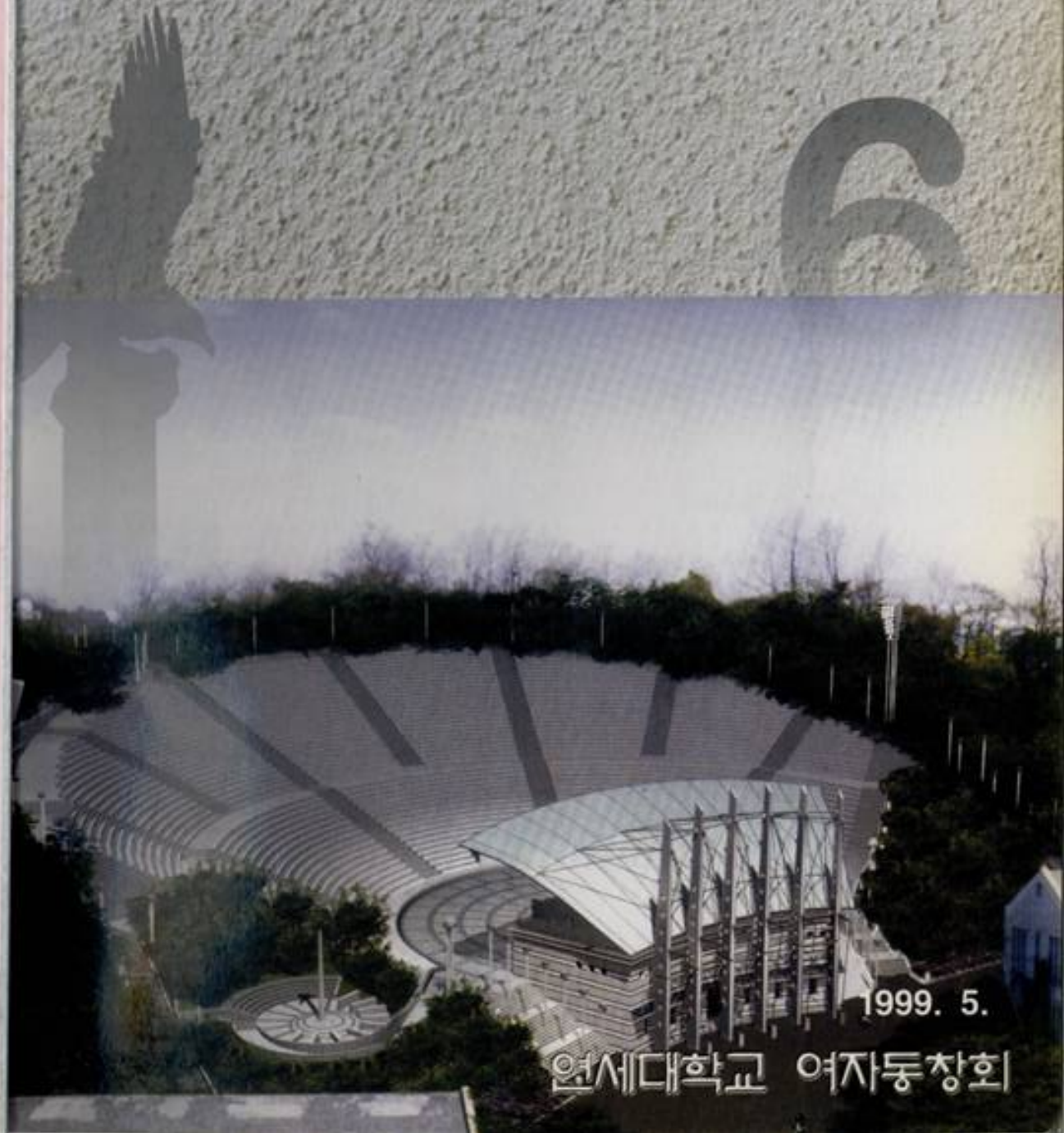


보통약가 삼양에스트란 50 - 1,654원/매
삼양에스트란 100 - 2,420원/매



문의전화 : 740-7391, 7396, 080-777-3400 FAX: 743-6626

연세백양:



1999. 5.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우리의 色 에는 가락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락—
노루표 페인트, 색에 살아있습니다.



한 개가 한 음을 가진
16개의 종을 얹어
12음, 4장상의
풍부한 음역을
만들어 낸 편종—
웅장하면서 동시에
날카로운까지

재니고 있는 편종의 가락은 때로는 강도에 따라서
그 음색을 달리했습니다. 음과 음을 음색이라 하여
구분해 나눌 줄 알았던 옛 선인들의 색에 대한
포용력의 지혜를 배워 오늘날의 다채로운 색으로
재현하는 일—노루표 페인트가 이어갑니다.



전종)

전종) 전종은 우리 문화유산으로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종은 11세기
경 고려에서 처음 만들어
진, 세종대부터
종소를 두 개씩 만들어
사용합니다.



대한페인트·잉크(주)

소비자상담실 : (02) 860-4077, 4177

제6호
연세대학교 동창회보

연세 백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999. 5.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 발 행 인 : 이순희
- 발 행 처 :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 전 화 번 호 : 365-0631~2
- 발 행 일 : 1999년 5월 29일
- 편 집 위 원 : 추애주, 왕세경, 이상경, 이정은, 최유라
- 기 획·제 작 : 한기혁(0342-715-4960)



인사말씀	영원이 마르지 않는 모임(이순희).....	4
축하합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강기원).....	6
	미래로 세계로(임택근).....	7
	선·후배의 연대를 기대하며(신보경).....	8
좌담회	여학생회 활동 '과거, 현재, 미래'.....	9
백양칼럼	하나님이 주신 가정(오예식).....	12
	연세 여동문회와 연줄(김용학).....	15
	여성 불출세의 변(김희동).....	17
살의 향기	가이없는 존재의 해변에(오예령).....	19
	The Most Beautiful Campus in Korea(양창순).....	20
	모교에서 가르치는 보람(안영란).....	21
	연세의 어제와 오늘(장순희).....	22
	다시 선택을 해도 간호학과를(김운희).....	24
	아버지 정인보 선생을 그리며...(정평완).....	26
	나의 바램(이정은).....	28
	아직 껌질이 단단하지 않았던 그 시절(황경신).....	29
컴퓨터 교육을 받고 나서	유영희.....	30
밀레니엄 새로운 도전	세대 차이(양선영).....	32
	디지털 경제와 여성의 역할(이호근).....	34
	성장호르몬은 외촌의 묘약인가?(이명희).....	36
	도전하고 성취하라(김예근).....	38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김민정).....	40
살의 현장	기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김예원).....	45
	기능과와 지역과(서빈).....	46
	또 한번의 시작의 기회(조경화).....	47
	기업구조조정과 재무조달(안영애).....	48
인터뷰	L.A동문 김정진.....	50
백양소식	모교소식 / 동창회 소식 / 동문동정.....	52



성폭력 학칙 제정에 귀기울이지 않는 연세, 해마다 증가하는 여학생수에 아랑곳 없이 여교수 비율은 6,70년대 수준을 유지하는 연세, 취업문제와 같은 사회의 만성화된 성차별을 해결하는데 별 관심없는 연세, 이런 연세는 연세의 여성이 제대로 달리지 못해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불만스러워 할 뿐, 그녀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차별받는다는 것도, 사회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레이스를 방해한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는다. 당연히 개선과 변화는 요원한 일이다. 그 오랜 세월, 각기 다른 세대를 살아갔음에도 동일한 좌절을 경험해야 했던 연세의 여성들에게 연세의 침묵은 유죄다.

- 백양 컬럼(세대자이)중에서

이제 6개월 후면 새로운 천년이 됩니다. 우리는 새 천년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우정과 모교에 대한 사랑이 더욱 귀중한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자 동창 4만명이 합쳐서 선한 목적에 보람된 일에, 큰 소리 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모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한 몫을 당당히 감당해 나가 후배들의 역할 본보기가 되도록 합시다.

- 이순희 동창회장 인사말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후진성의 큰 지표 중 하나인 남녀차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의식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그러한 의식개혁을 역시 연세대 같은 위대한 사학이 앞장서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으로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기대합니다.

- 강기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 중에서

[미래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1세기의 비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연세동문회의 한 쪽 날개를, 머지않은 장래에 여자동창회가 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임택근 동문회사무총장 축사 중에서

광고협찬사

- 대한 페인트-잉크(한영재 동문/'73 경영 입/대한페인트-잉크 사장)
- 한국화장품(임진서 동문/'85 정외 입/한국화장품 마케팅이사)
- 대우건설(김우중 동문/'56 경제 입/대우그룹 회장)
- 삼양사
- 아시아나 항공(박삼구 동문/'63 경제 입/아시아나 항공(주)대표이사)
- 수안보 파크 호텔
- 아름다운 치과(백일수 동문/'74 치과대 입/아름다운 치과 원장)
- ERA태광부동산 서비스(도혜신 동문/'73 독문과 입/ERA태광부동산 대표)
- 한국 볼트(송관섭 동문/'73 경영 입/ 한국 볼트 사장)

* 본지에 귀한 글과 광고를 협찬해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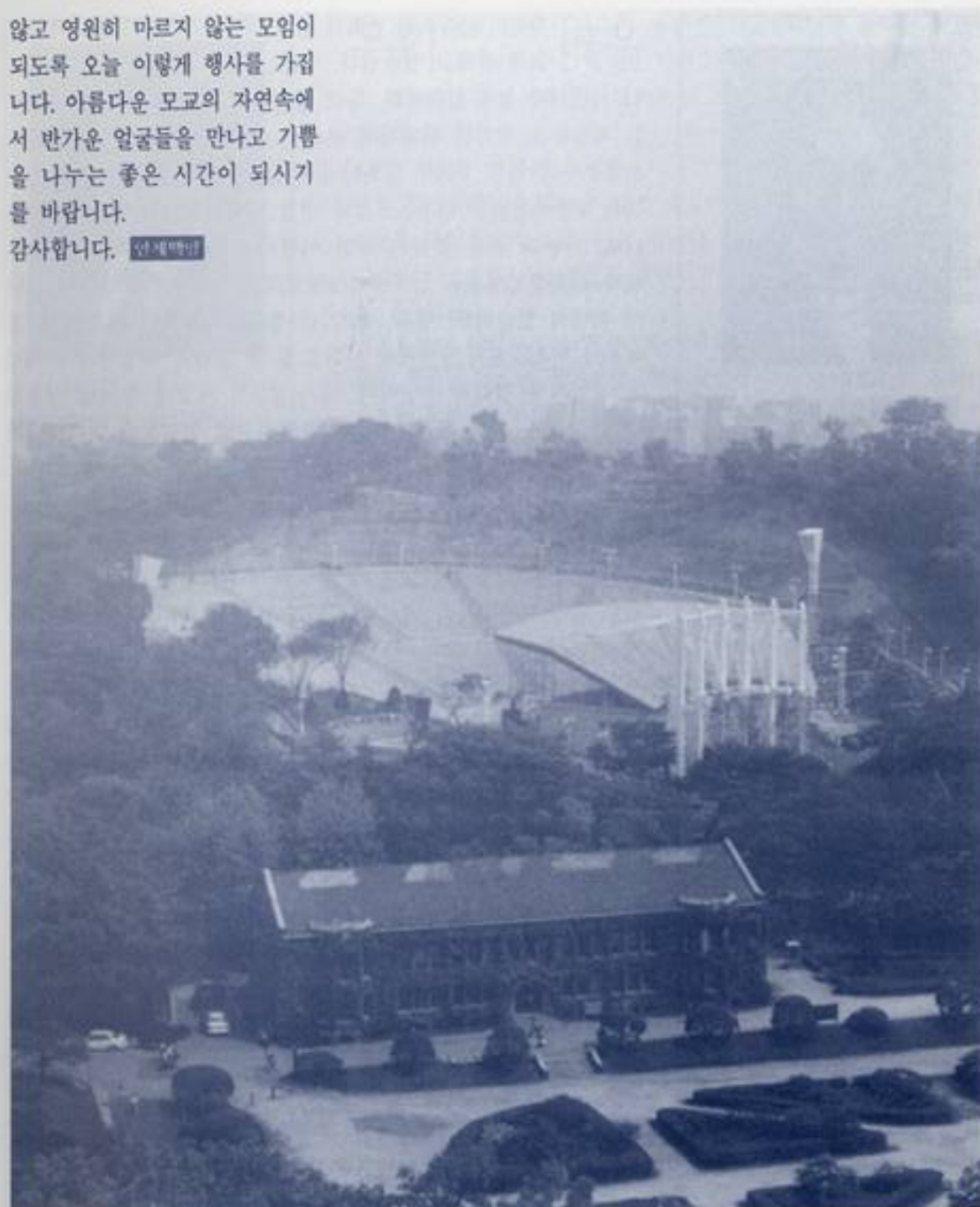
이 순 희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회장
'99 생물학과 입

연세 대학을 졸업하신 여자 동창생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작년 5월 30일에 뵈고 오늘 만나 인사드리니 반갑고 기쁩니다. 모교 창립 114주년, 남녀 공학 53주년, 우리 여자 동창회가 결성된 지 20주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이 누리는 은총이요 감사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여러 역대 회장님들, 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렇게 자라고 커 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여자 동문의 숫자는 비공식 통계지만 대략 4만여 명에 이르고, 여자동창회 주소록에 기록된 수는 1만여 명이지만, 이에 비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숫자는 3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학시절 우수했던 여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다 사라졌느냐고 말씀하신 총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4만 여명의 여자 졸업생이 힘을 모쳐 발휘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며, 보람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 우리는 모교를 찾아오고, 동문 회관을 찾아오고 여자 동창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일 년 간 우리 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하였습니다. 주소록을 만들어 졸업한 동창들간에 소식의 통로를 만들었으며, 회칙정관을 보완, 개정하여 우리 모임의 기초 틀을 튼튼히 하였으며, 20년 간의 우리 모임의 역사와 연세대학 여자 졸업생들의 모습을 담은 역사책을 편집 중에 있어 이 책의 발간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자 동창회 활동도 문서화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해외 연세 여자 동문들과 유대하여 많은 세계 정보와 모교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후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 천년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합니다. 이제는 암탉이 울면 새벽이 오고 알을 낳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여동문들의 우정과 모교에 대한 사랑이 더욱 더 귀중한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자 졸업생 4만 명이 힘을 합쳐서 선한 목적과 보람된 일에 앞장설 때가 왔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모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한 몫을 당당히 감당하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여자 동창회가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모임이 되도록 오늘 이렇게 행사를 가집니다. 아름다운 모교의 자연속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기쁨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백영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강 기 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의 급작스런 변화와 함께 여성이 처한 사회적 여건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적인 시련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의 실직이나 수입감소로 새로운 고통을 겪고 많은 직장여성들은 남성동료보다 먼저 일터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과 꿈을 펼치기 위해 어렵사리 들어간 대학문을 나선 여자 대학졸업생들은 남자졸업생들보다도 한층 더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지식기반 산업사회로의 이행시 그 성공여부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있다고 볼 때 고학력 여성인력의 사장은 국가전체 인력의 손실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저는 색다른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녀차별 관행을 시정하려는 법적 제도적 개선은 꽤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국민 의식 차원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양성 평등 의식이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주체로는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학교야말로 학생들에게 차별, 불평등, 편견은 잠재력 신장에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에의 도전과 영감 등을 불러 넣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연세대는 일찍이 선각자들의 손으로 배움의 터를 닦았고, 여학생을 받아들인 것도 1946년도로서 남녀에게 모두 희망과 자신을 길러 준 위대한 사학입니다. 저의 집안에 연세대 동문이 많을 뿐 아니라 저 자신도 연세대 특수 과정을 마친 인연을 뜻깊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후진성의 큰 지표 중 하나인 남녀차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의식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그러한 의식개혁을 역시 연세대 같은 위대한 사학이 앞장서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으로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연세백양

미래로 세계로



임 태 근
연세대학교 동문회 사무총장
'51 정외과 입

연세 동문회의
한쪽 날개를
머지않은 장래에
말으실 수 있기를...

우리 모교 연세는 신록의 계절 5월에 대자연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백양로 양편으로는 여러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청송대에는 푸르름을 더해가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4만여 여동문 여러분!

먼저 창립기념일이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열리는 여동문의 날을 19만 동문을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같이 좋은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바로 모교 발전의 울타리이자 동창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79년에 3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여동문들의 만남은 1992년 전까지는 백양 모임이라 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는데 뜻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자 동창회라 명명한 이후로 동창회는 여동문들의 바램을 토대로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만 여동문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등 4만여 여동문들의 대표기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자동창회장은 당연직으로 연세대학교 동문회 상임부회장이 되어 그 위상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만여 여동문 여러분!

최근 급격히 늘어난 재학생들의 여성비율을 볼 때 향후 여자 동창회의 활동은 우수한 여동문들의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조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연세의 여학생들이 졸업 후 결혼과 함께 가정에 묻히지 말고 개성과 능력을 살려 전문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 조성 및 기회 창출도 동창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동문들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나아가 상부상조하는 동창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1세기의 비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연세동문회의 한쪽 날개를 머지않은 장래에 여자 동창회가 말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모처럼 찾은 모교에서 풍성한 정을 나누시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오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의 경품도 타 가시길 바라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백양

선·후배의 연대를 기대하며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제11대 총여학생회장 신보경(인문학부 4)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여성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선배님들께 이렇게 글을 띄우게 되어 반가우면서도 약간은 떨립니다. 총여학생회는 올해로 1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가운데에는 총여학생회를 겪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이 되고 여학생의 수가 해마다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총학생회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1987년 총여학생회는 세워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뿌리깊이 인식된 여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지성의 전당이라는 학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선전하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천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11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일상에 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성문제는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닌 바로 내가 여성으로 살고 있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또한 내부에서 외부로 확



신 보 경
총여학생 회장
인문학부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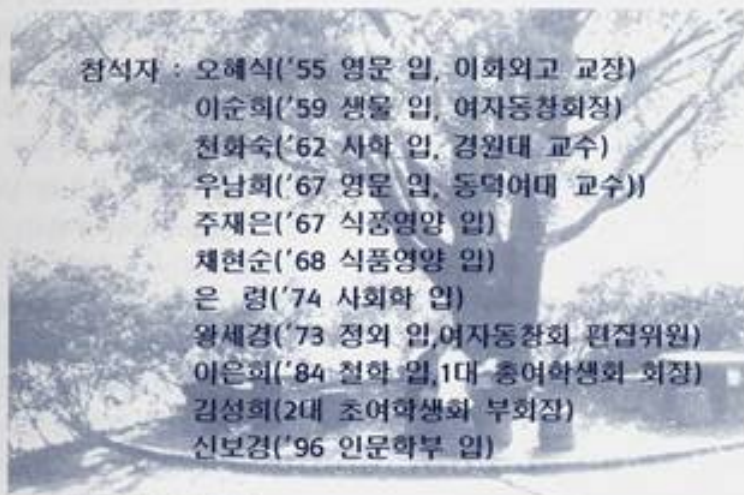
산되는 여성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학생의 수가 40%에 이르는 우리 대학에서 여학생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익을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지방과 같은 여학생 휴게실을 아늑하고 의미있게 꾸미는 일에서부터 여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진로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여학생회는 분명 총학생회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만의 독특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총학생회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여성을 불평등에서 해방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 역시 고정관념에 의해 억압된 부분을 함께 고쳐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남성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바로 총여학생회가 하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날카로운 지적,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자동창생과의 연대를 통해 총여학생회는 힘을 얻고 또 연세대학교 출신의 여학생들은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학생들의 연대가 남학생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총여학생회와 여동문회가 먼저 연대한다면 그 첫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연세의 오찬 여학우 앞에, 여러 선배님들 앞에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이만 글을 맺을까 합니다.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나마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항상 평안함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문학부 4학년 신보경

여학생회 활동 '과거, 현재, 미래'



참석자 : 오혜식('55 영문 입, 이화외고 교장)
이순희('59 생물 입, 여자동창회장)
천화숙('62 사학 입, 경원대 교수)
우남희('67 영문 입, 동덕여대 교수)
주재은('67 식품영양 입)
채현순('68 식품영양 입)
은령('74 사회학 입)
왕세경('73 정의 입, 여자동창회 편집위원)
이은희('84 철학 입, 1대 총여학생회 회장)
김성희(2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신보경('96 인문학부 입)

왕세경 몇 세대가 모였으니 당대의 여학생에 대한 학교 전체 분위기가 어땠는지, 학교에서의 여학생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볼까요?

오혜식 우리 때는 '54, '55, '56 입학으로 3년동안 무시함으로 모였어요. 성적 좋은 여학생들이 무시함으로 들어온 거예요.

천화숙 '65년까지가 그렇고 '66년이 국가고시 1회지요.
오혜식 백낙준 박사의 처제이신 최이순 선생님이 이화대학에서 오셔서 여학생처장이 되시고 논지방을 세우셔서 이것이 여학생들의 안식처가 되고 지도력을 개발했지요. 거기 모여서 점심먹고 대화를 나누었지요. 여학생 선배들끼리 가까웠어요.

이순희 녹양회회장을 논지방 당수라고 했어요. 심치선 선생님이 1회, 제가 12회지요.

오혜식 이선애(영문과, 전 아세아여성신학 교육원 원장, 지난 5월 돌아가심), 민준기 선생님도 1회지요. 녹양회를 조직해서 특강도 듣고 한양선 선생님도 이대에서 체육과 교수로 오셨고.

왕세경 특강의 내용이 어땠나요?

오혜식 여학생의 진로, 교양강좌도 있었고, 또 창립

기념일 행사로 May Queen을 뽑았지요. 그래서 1대 Queen이 54년 입학한 김희정 언니였고, 나 도 시너로 학년별로 한 명씩 뽑는데 뽑혔지요. 지금은 똥똥해졌지만 그때는 날씬했잖아요.

(모두 웃음) 2대는 세브란스 백순영이었고 '62년부터 없어졌어요. 영향이 안 좋다고...

이순희
천화숙

오혜식 최이순 선생 계실 때 외국식으로 하여 exciting 하고 좋았어요. 사진 다 걸고 투표하고 축제 분위기였지요. 그때 걸었던 사진이 아직 앨범에 있어요. 우리 때 여학생 인원은 우리 6명, 상경대 2명, 정의과 박인숙, 이공대 3명, 음대 5명, 모두 16명이었어요.

천화숙

'62년도는 국가고시 1회여서 연대는 서울대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다 왔어요. 우리 때는 40명 정도였어요. 수가 적은 대신 독특한 사람이 많았지요. 당시 녹양회장은 모범생이고, 성적도 좋았고 리더쉽도 있어야 되고 투표했으니 인기도 있어야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지요.

그때는 4.19, 5.16에 이어 월남파병반대 데모, 한일회담반대 데모가 한창 때였거든요. 여학

생회는 주관대로 움직였지요. 발표할 것하고, 건의문도 내고,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위문도 가고, 낙엽전시회도 하고요. 당시 연대는 농구로 유명했지요. 신동과 동 가장 우수한 농구선수들이 연세대에 있었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초청해서 농구장에서 파티도 해주고, 여학생다우면서도 자긍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정의와 남학생 한 명이 여학생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벽돌로 치는 사건이 났는데...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남녀공학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고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지요.

오혜식 나는 연대 다니면서 YWCA를 조직했어요. 그 후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SCA와 합쳐졌지요.

천화숙 60년대까지도 남녀공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면도 있었어요. 즉 시집을 잘 가려면 이대로 가라는 등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연대를 택한 건 좀 특별하지요?

왕세경 성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조화롭게 잘 넘긴 사람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여성성을 너무 강조해서 넓은 세계를 못 본 사람은 나름대로 겪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화숙 이성관계를 너무 의식하여 거기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성은 발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이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어요. 연대에 오는 여학생은 대인관계에서 여대를 간 여학생보다 이성을 먼저 알게 되니 이성을 잘 management해서 실제 생활도 잘 이끌어 갔으면 해요.

우남희 제가 다닐 때는 여학생이 25%정도로 늘었어요. 음대, 가정대, 간호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녹양회도 여학생이 많았으니 직접선거를 할 수가 없었고 과에서 대의원을 뽑아서 간접선거를 했지요. 그리고 그때는 녹양회장이 자동으로 총학생회 부회장이 되었어요.

여학생의 지위가 낮았다는 거지요. 녹양회가 당당하게 따로 있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총학생회에 소속됐던 거예요.

주재은 저는 우남희 동문에 이어 녹양회장을 맡았어요. 식생활학과 기년 졸업생이에요. 그러나 곧 영국으로 유학을 갔지요.

채현순 저는 68학번이에요. 저희 때 임원으로서 언니들이 조화롭게 일을 잘 하시는 것을 늘 보아왔어요. 우리는 다 저렇게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여학생회와 총학생회는 서로 협력하며 일을 재미있게 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70년대는 교련강화 반대 데모가 많이 있었어요. 1년 내내 데모했어요. 임기 끝나고 가을에 10.15 위수령으로 임기 끝난 사람을 다 잡아갔지요. 그래서 총학생회장은 제적당해서 1년 반쯤 늦게 졸업했어요.

왕세경 활동하느라고 공부에 지장이 있었겠지요?

채현순 지장이 많았어요. 총학생회가 서클 40여 개를 다 관할했기 때문에 총학생회 주관대로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하다보니 공부에 지장이 많았어요. 우리 때는 여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여학생이 없어서 녹양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여학생 위상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요. 아직 나오고 있는지요?

은 령 없어졌지요. 학도호국단으로 바뀌면서...

왕세경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연세여성'이라는 잡지도 있었어요.

은 령 저희 전대부터 학도호국단이 되었어요. 총학생회장은 사단장, 전체 학년을 3연대로 나누었는데 여학생들은 제3연대에 소속되었지요. 학생회를 군사훈련조직으로 바꾸고 임원도 선출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임명했었지요. 어떻게 보면 학생회의 맥이 끊긴 것이지요. 데모도 2학년 때까지는 했는데 3학년 때부터는 데모하면 즉결이었어요. 1학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여학생들을 orientation 때 따로 불러서 연고전 응원 야웅소리를 연습한 거예요.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은 후배들에게 우리가 밟은 불리한 길을 밟지 않게 하고 정보도 주려는 목적이지요. 연세대 여동문들도 이제 4만이라고 하니 그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 남기란 하늘에 별 따기고, 본교에서도 여동문을 채용 안하고 남자 쓰고, 여자들은 가정에 묻혀 있었지요.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만 있고 그 능력을 사회에 환원, 발휘를 못하는 상태지요. 안타까와요.

은 령 그래도 저희 때는 여학생활동이 현실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취업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인기직종 1위에서 20위까지 뽑았어요. 기자, 스텝어디스, 교수, 미술 분야 등 전문직 여성 선배님들을 불러서 강좌 들어보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취업하기 위한 준비 사항 등을 상세하게 연구했지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바라는 바는 이제 남녀공학 50여 년이 훨씬 지났으니 여동문회가 활성화되어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구심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기여했으면 합니다.

왕세경 연대도 외형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학생이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학교 측은 여학생회가 기여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는 데 우리는 혜택받은 것이 없어서 기여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마구 웃음) 여학생 수가 훨씬 많은 과에서조차 여교수를 아직 못내는 과도 많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순희 송자 총장님은 그 공부 잘하던 여학생들이 fade away되었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의를 제기하려고 했어요. 여동문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하고 싶었고, 문제는 그 여동문들로 하여금 학교에 기여하게 하는 아무런 동기 유발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세경 그런데 사라졌나 하고 여동문들을 찾아보니 교수도 많고 언론계에도 많은데 그 구슬이 꿩

지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남희 연세여성 언론 모임과 여교수 모임은 이미 형성되었어요.

이은희 82년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고 총학생회가 부활하면서 그 산하에 여학생부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여성의 문제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여 총여학생회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 저희 때는 현은희 회장 하에 부회장이 5명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대에는 87년 6월 항쟁으로 이현열 학우의 사망도 있었고, 여학생들의 취업 성차별, 여성근로자들, 농민 여성들의 부당대우, 주부의 가사노동의 인정 등 주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식화를 위해 '또 하나의 문화' '독일의 여성사회학자' 등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88년 여학우지로 '잉태'라는 제호의 창간호를 발간, 저는 2호를 편집했어요.

왕세경 그래요. 애기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마무리 해 볼까요? 현재 총여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보경 양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신보경 총여학생회는 현재 11대로, 그 동안 기간지로 '연세여성'을 발간해 왔으나, 여성운동이 학생권 운동과 함께하여 가던 중 97년 한총련 교양학부 난입 사건 이후 폐간되었습니다.

요즈음 저희들의 활동은 여학생으로서 누려야 될 권익과 복지부분, 작게는 여학생 휴게실 문제, 나아가 대학원 입학의 여학생 불이익, 여교수 임용의 차별 등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연대하여 공조하며 늘 협조하지만, 우리가 겪는 여성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의 협조를 얻으려면 이해시키는데도 힘이 듭니다. 아직도 성의 괴리를 느낍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선배들의 막강한 후원을 쉽게 받고 있는데, 여동문간의 연대와 후원이 몹시 아쉽습니다. **연세백영**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성경말씀: 에베소서 5:31-6:4



오 혜 식 목사

이화여자대학교고등학교 교장
35 영문과 입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생각하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가정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종교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모임이요, 한 작은 사회입니다. 이 가정에서 비롯해서 사회와 국가의 축복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1.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밀 수 있을까를 늘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두 남녀의 결혼으로 짝지어져 시작됩니다. 결혼은, 서로 몰랐던 남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부부가 되어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행복한 가정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11-12 말씀처럼 "주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2. 기독교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엡 5:31-32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특징입니다.

(1) 기독교 가정의 첫째 특징은 연합입니다.

온 가족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믿음의 띠로, 사랑의 띠로 묶여진 가정이 바로 연합된 가정입니다.

(2) 기독교 가정의 둘째 특징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엡 5:33절 말씀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서로 위해야 합니다. 롬 12: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4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Eros)라고 하며 형제간의 사랑을 스토르게(Storge)라고 합니다. 친구간의 우정이나 인간관계를 필로스(Phelos)라고 하며, Philosophy(철학)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Agape)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조건없는 아가페 사랑을 서로 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Eric Fromm)은 사랑의 속성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1)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Concern)
- 2) 사랑은 서로 돌보는 것이다(Care)
- 3)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Understand)
- 4)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Respect)
- 5) 사랑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Giving)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 사랑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서로 하십시오. 인격적인 존중을 하십시오.

(3) 기독교 가정의 셋째 특징은 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전 13:4-5절 말씀에 사랑의 속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서로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태영 박사의 '나의 만남, 나의 인생'이란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2남 1녀를 둔 30세의 어머니는 이태영 박사가 첫들을 지나자 탄광 사고로 나이 서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까지 벌어들인 돈을 최창선 선생을 통해 만주, 북경 등지의 애국자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부 보내고 물려받은 재산 하나없이 3남매를 기르는데 고생 많이 하셨지요 노동에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부지런한 분이었고 남녀차별없이 자녀들을 키웠고 끝까지 공부 많이 시키겠다고 늘 공언하셨지요. 동네 부부가 불화 끝에 찾아와 하소연 할 때면 어머니가 늘 이렇게 타일러 보내는 것을 이태영 박사는 보았답니다.

"여보, 너무 호사스러운 얘기 아니우. 나 같으면 남편이 10년에 한 번씩만 찾아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하는 말 한마디만 하고 가버린다 해도 한이 없겠수다." 이태영 박사의 어머니는 부모에게는 효녀요, 남편에게는 열녀요, 자녀들에게는 현모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잘 길러주고, 살림 잘하고 남편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함께 일하며 사업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일들은 서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 의견과 좀 달라도, 금방 변명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꼭 참고 끝까지 다 들어야 합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오거나 변명이 성급하게 나오려 할 때는 고전 134절을 외우십시오. 서로가 이러한 인내의 노력을 계속하면 늘 평화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4) 기독교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미국의 가정문제 치료자인 Sven Wahlroos는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최고의 만족은 우리 모두가 사랑의 가족이라고 느낄 때 온다"고 하였습니다. 엡 6:1-3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믿고 늘 격려하고 인정하며 좋은 점을 칭찬하며 기를 때 그 자녀들은 자신감이 생기며 믿음의 생김이 긍정적으로 밝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자녀들이 잘한 것, 변화된 것, 좋은 점들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부모님들을 기본 좋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학자인 Virginia Satir 박사는 가정이 지니는 네 가지 특색을 말하는데 이것이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면 그 가족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 (1) 자신이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가정(Self-esteem)
- (2) 서로간에 대화가 있는 가정(Communication)
- (3) 부모 자녀 간에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Rule)
- (4) 사회와 잘 조화되어 연결되어 있는 가정(Link to society)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사랑의 띠로 묶여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점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자신감 있으며 명랑한 성격,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는 인내와 사랑과 존경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조하며 서로 존중하면서 주신 이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풍성한 삶,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백양

연세 여동문회와 연줄

MBC 라디오 방송의 <여성시대>라는 프로에서 어느 청취자의 편지글이 소개되었다. 군대를 갔 제대한 어느 남자가 취직을 하려고 입사원서를 쓰다가 집안의 유력 인사나 혹은 이 회사 간부 중에서 아는 사람의 이름을 쓰라는 칸을 발견하였다. 그의 집안에는 내놓을만한 저명인사도 없었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간부사원 중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는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루종일 서성거렸다. 저녁 무렵 명찰을 떼지 않고 퇴근하는 어느 직원을 발견하고는 명찰에 적힌 이름을 입사원서의 빈칸에 옮겨 적었다. '총무과장 김 XX, 관계 사촌형' 효과가 있었는지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면접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면접 장소에서 면접위원으로 나온 바로 그 총무과장을 발견한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총무과장이 물었다. "자네 나를 아는가?" 임기응변으로 "예, 저는 과장님을 평소부터 형님처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이 남자는 며칠 후 합격통지를 받게 된다. 출근 첫날 총무과장은 그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총무과장은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은 나도 자네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다네." 이후 둘은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위에 언급한 실화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연줄이 있어야 취직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줄이 어디 노동시장에서만 작용하는가?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 현상은 이름하여 연줄 공화국,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연줄이 약하기 때문에 성차별을 받는다. 여성이 같은 일을 하는 남자 직원보다 월급이 낮은 이유를 어느 기업체 간부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김 용 학

연세대학교 교학처장, 사회학과 교수
73 사회학과 입

믿는다. "남자는 동원할 수 있는 연줄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켜도 여성보다 더 빨리 결과를 냅니다. 관공서나 구청, 동회에 가도 남자들은 아는 사람을 소개받아 일을 쉽게 처리하지요." 각 개인의 능력보다는 동원할 수 있는 연줄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빠르게 출세하고 업무 추진력이 있다는, 성차별을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이야기이다. 개인의 능력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른다면, 양질의 연줄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을 일컬어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고등교육을 덜 받았으나, 지금은 교육 성차별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학부생 40% 이상이 여학생이라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잘 입증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은 '사회적 자본'에서 매우 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친구들 대부분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연줄이 약하다. 또한 가사일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근 후 바로 집으로 향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줄을 개발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3대 강한 연줄은 해병 전우회, 호남 향우회, 고대 교우회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강한 연줄의 이면에는 '우리가 남이가'의 논리가 있다. 연줄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서구의 연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의 연줄이 '정보 교환' 이외에 '통제권의 교환'의 매개고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통제권의 교환의 예를 들면, 은행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과 대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은행장이 서로 자신의 통제권을 교환하는 것이다.

얼마 전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대 폐교론이나 서울대 망국론의 핵심은 연줄의 통제권 교환의 문제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연줄의 '눈덩이 굴리기 효과(snow-balling effect)'가 낳은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서울대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은 서울대의 교수와 교육과정, 교육환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서울대의 동창관계가 좋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차관을 석권하고, 사회적 엘리트 점유율이 그토록 높은 이유는 대학 입학당시 수능 점수 20-30점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졸업 후 갖는 동창관계의 효과에 있다. 각 대학의 동일학과 동창회 명부 분석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가령 졸업한 지 30년 되는 정치학과 졸업생들의 활동상을 대학교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자들의 사회 엘리트로의 진출은 두드러진다. 소위 2류 대학 정치학과 동창회 명부를 살펴보면, 동창회 명부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사람이 이름만 있지 현재의 직업(직위)란은 빈칸이 수도룩하다. 대학 졸업 직후의 사회 진출에는 별 차이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가?

큰 눈덩이는 한번 굴릴 때 더욱 빨리 커지듯이 서울대 연줄의 누적적 가중이 학교 차이를 더욱 벌여 놓은 것이다. 과거 20년간 대학간 커트라인 성적을 비교 분석하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가령 서울대와 연고대의 차이는 20년 전에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격차는 점차로 벌어져, 이제는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대 밑으로 처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연줄의 눈덩이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인들의 연줄, 특히 여동문들의 연줄은 서울대를 위시한 다른 대학들에 비해 취약하다. 연락처가 확인된 여동문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동문들의 숫자는 더욱 작다. 동문회는 바로 연줄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장소이다. 필자는 연줄을 통해 되지 않을 일을 되게 하고,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서로 나누어 먹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서구의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꼽은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 동문의 연줄은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정서적인 유대감의 제공처로서, 그리고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장소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을 따름이다. 고대 교우회와 대비되는 연대 동문회, 특히 여자 동창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연세백양

여성 불출세의 변

"뚝뚝" 한 여학생으로 입학하여
"바보"로 졸업한다."

"일등짜리 여학생들 다 어디로 fade away했는가?" 많이 들어본 소리 같다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있으니, 우리 연세 여동문들을 두고 어느 총장님이 질책한 말이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라는 의문을 던져보는 것도 우리 여동문들이다. 남녀공학의 역기능 중의 하나가 여학생들이 과보호 받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가미되어 사회진출을 꺼린

다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나는 1961년 연대 정외과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Columbia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문헌정보학, 사회학) 20여 년간 New Jersey 주립대학의 하나인 William Paterson University에서 근무했다. 귀국 후 Asia Foundation(미국 지원재단)에서 사업 보좌관으로 4년여 일한 적이 있다. 아시아 재단은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나 역시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여기자, 여성 방송인들을 국제회의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일에 물심양면의 후원을 적극 독려해 왔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사회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한 것은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여성 자신들에게 있다고 본다.

한 예로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후보를 찍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감까지 갖는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너무나 다르다. 일본의 여성운동인 Network 운동은 이십여 년 전 무공해 생필품 협동구매로 시작해 소속단체의 지원으로 지방의회에 당선된 '대리인'을 통해 요구사항을 실천시키고 Network를 통해 당선된 대리인은 자기 보수의 75%를 소속단체에 기



김희동

사회과학대 여자동창회 회장
57 정외과 입

증해야 하며 이 기금은 그 단체가 추천하는 입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운동이 풀뿌리에서 시작되니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의식이 한국과 판이할 수밖에 없다. 또 한 예로는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 주위에 친분이 있는 여성들이 교대로 그녀의 집안일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여성을 돕는 것이니까 자기들도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자각을 갖는다고 한다. 한국여성 의

식이 언제 이 정도의 협조정신과 연대의식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흔히 한국에선 여동창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란다. 여성들이 이 정도로 자신이 없고 남의 이목의 노예가 된다면 어찌 사회나 가정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할 자격이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또 한가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과 다른 한국적 사고방식이 있다. 친목이나 봉사를 위한 조직의 임원이 되면 시간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실정은 능력은 있으나 재력이 부족한 사람이 책임자로 활약하는 것을 저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회장은 시간과 능력을 그 단체를 위해 바치는 것이지만 금전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그러면 한국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 분야에서 능력 있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성 자신들이 만들어야 한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겸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남편이 조금만 가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아내가 조금 노력하면

가정과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믿는다. 이제는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차별이나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의 의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단결하여야 한다. 사회(여성단체를 포함한)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을 더 많이 지방자치 의회는 물론 국회로 보내 여성을 위한 정책결정에 당당히 참여하도록 하여

야 된다. 한국사회 의식의 흐름도 이전 여성의 활약을 환영은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화 시대의 한국여성은 3P(patience, persistence and perseverance)를 기본정신으로 전문성과 어학 실력을 쌓아 나간다면 한국여성의 앞날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무대 진출에 있어서도 크게 향상될 것임을 확신한다. **연세백양**



가이없는 존재의 해변에

누가 무슨 선물을 사 줄까 물을 때마다 별로 필요한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양하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실상 저는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꼭 지니고 살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부족함을 못 느끼는 자족의 상태 이것을 가난이라 부르며 제 자신을 가난한 자라 이름짓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점과 행복을 포기하는 것을 가난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가난을 묵상하면서 저의 부자스러움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진정한 가난이란 이웃에게 나를 맡겨 버린 태도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때어놓는 시간이나 여유의 몫이 없을 때 비로소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과 판단 그리고 생각이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게 한다거나 자신의 삶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사람은 이미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나 소유에 애착을 느껴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가난을 위장한 부자였는지요? 저는 아직 시간을 못 붙들어 안달할 때가 많습니다. 제 이 옷이 저를 마음대로 부려먹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버리고 끊고 하는 연습을 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아직도 넘치도록 넉넉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치와 쾌락은 이미 제 것이



오 해 령

수필가 '평화의 집' 원장
'61 영어영문학과 입

아닙니다만 저는 어떤 일인지 항상 풍요로움과 다채로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돈이 없어서 켈때때면서도 저는 언제나 느긋합니다. 비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기분입니다. 흠족하고도 풍만합니다. 모두 바쁘다고들 한탄하면서 혼자 있을 시간을 마련하려고 바둥거릴 때 저는 무한한 기쁨 속에 사막을 만들어 가집니다. 고독과 침묵을 수시로 소유하며 그 안에서 사랑과 지혜의 깊이를 재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 사치입니다. 가난하다고 뽐낼 수 없는 영토로 밀려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척하고 산 모습이 몹시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해지기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고 덧입은 부요의 옷을 하나씩 벗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부(富)의 어두움은 가난의 불꽃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제 가난의 결핍은 가난이 가져올 사랑스러움을 비추고 있습니다. 꾸준히 벗고 비우다 보면 제 존재의 해변에 결국 가난과 무(無)의 빛만 하얗게 깔리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제 존재의 바닷가에 거무튀튀하게 올라와 있는 파도의 때, 파도의 거품마저도 깨끗이 씻겨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영혼의 빈 바다가 출렁이며 무소유의 환성을 지르게 되고 저는 끝없는 무(無)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윽고 가이없는 영혼의 해변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연세백양**

The Most Beautiful Campus in Korea

언젠가 연세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아이에게 연세 캠퍼스를 구경시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그러자 아이가 최상급은 빼고 그냥 'Beautiful campus'라고 하더라. 순간 섭섭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이한테는 특별히 애뜻한 인연이 없으니 그런 반응을 보이는게 당연했다. '무엇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삼스럽게 새록새록 느껴지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친정집과 친정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그 중 하나이다. 또 한가지는 세월이 갈수록 대학시절과 그 시절의 캠퍼스가 자주 또렷한 추억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제는 기억속에만 존재하는 젊은 날의 열정과 방황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리라. 때때로 과거의 그 젊음이 그리울 때 나는 연세 캠퍼스를 찾는다.

의과대학 시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두침침한 교실에 엮여 있다가 어찌다 넘겨다보는 본교 캠퍼스는 너무나 화창하고 아름다웠다. 잔디위를 뒹구는 학생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자유롭게 보이던지. 그 모습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는 탓인지 나는 지금도 본교 캠퍼스를 찾



양 창 순
정신과 전문의,
현 서울 백재병원 부원장
76 외과과 입

을 때마다 자유의 기억으로 마음이 울렁거리곤 한다.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답다(너무 뽀뽀이 들어선 건물이 좀 마음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백양로도 그렇고 청송대와 후문 뒷길의 수많은 나무와 꽃들은 여전히 눈부시다. 공기조차도 자유로움으로 넘치는 듯하다.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이곳에서 젊음의 열정과 꿈과 패기와 자유를 마음껏 펼치고 누리기를 바란다.

나이가 들어가는 탓인가. 젊을 때에는 칭찬의 말도 조심스레 꺼내고 때로는 비판조차 아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세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만 느껴진다. 덕분에 어딜 가나 연세인으로 가슴을 펴고 산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 노심초사하게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 마음 또한 사랑인 것을 어쩌랴. **연세백양**

모교에서 가르치는 보람



한 영 란
연세대학교 기악과 교수
75 기악과 입

후배이자 옛 제자로부터 원고 청탁을 부탁받았다. 그것도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비슷한 경우가 여러차례 있지만 몇 번인가 거절했던 일이 생각난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나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나의 경우에는 피아노 연주를 하려면 했지 글쓰기는 웬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책상앞에 앉아 나의 과거에 관한 글을 쓰려니 쑥스럽기까지 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엄한 교육을 받은 나는 집이 인천인지라 예고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줄곧 먼 거리를 통학해야 했다.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통학 초기만 해도 옛 중기 기관차를 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겠지만, 학과 공부와 피아노 연습까지 해야 하는 예능계 학생으로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에 입학하자마자 중앙 음악 콩쿨과 동아 음

악 콩쿨을 석권하는 영광도 안았고 또한 운도 따라 두 차례의 정기 연주회에서 협연도 할 수 있었다. 79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신인음악회에 출연한 후 곧바로 독일 유학의 길이 열려 나는 독일행을 결심했다. 서양음악이 전공인지라 본고장인 유럽쪽으로 가서 그네들의 생활과 문화, 정신 등을 꼭 피부로 접해보고 여러가지로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 접한 낯선 이국땅에서의 유학 생활이야기를 이 짧은 지면에 일일이 다 서술할 수는 없지만, 내게는 정말이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고 항상 부족함을 절감하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소 아쉽지만 긴 독일 유학생활을 마감하고 몇 가지 이유로 그 사이 십여년이 넘게 한번도 와 보지 않았던 고국땅으로 오기로 결단을 내렸다.

귀국 후 여러 대학에 강사로 나가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다시 독일로 가고 싶은 생각에 머리속은 복잡했다. 그러던 와중 너무나도 뜻

밖에 모교에서 피아노 교수 공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또 한번의 기회가 나에게 온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통합의 날,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로 찾아와 주었다.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 후 94년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녔을 때와 또 혼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했던 유학시절, 그리고 귀국해서 지금까지 나의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보면 나름대로 다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 지금은 후배 제자들과 더불어 음악과 삶을 공유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인생인가? 살다 보면 기회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다가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결국엔 미소 짓는 행운의 여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세백양**

연세의 어제와 오늘

올해 연세 재상봉에 참석하게 된다. 2년 전배였던 남편 덕에 동기들보다 빨리 재상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벌써 졸업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그간 연세를 조금은 떠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쁜 개업의 생활 탓에 한가로운 연세의 분위기에 젖어들 수가 없었다. 잠시 29년 전 처음 연세와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니 많은 부분이 희미하다. 이게 치매 현상인가? 청송대가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보였고, 연세 캠퍼스에 비해 많지 않았던 학생들 덕에 혼자서 넓은 면적을 차지했었고 사색의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아마 지금은 무척 생소한 단어일 '홍일점'. 그때 연세엔 홍일점이 있는 과가 많았다. 덕분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학과장님의 배려와 여학생 처장님이셨던 심치선 선생님, 사감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의 배려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논지방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고, 가끔은 수업을 땡땡이 치는 바람에 갑자기 오갈 데 없어 자주 들르던 청송대에 앉아 절로 시인이 되어 몇 자 끄적여 나무 틈 사이에 꼭꼭 숨겨두었다가 먼훗날 꺼내보리라는 동시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무척 커버린 미우학사. 그때 34명의 학우와 사감 선생님, 그리고 부엌 및 경비를 맡아주셨던 분과 그분들의 아이가 있었다. 그 38명의 살림살이를 꾸려갔던 1대 총무로서 본



장 순희
처과 원장
'70 치위학과 입

과 1년의 공부와 기숙사 살림살이, 밤 10시 점검 등 하루를 바쁘게 보냈던 시절. 간혹 담배 피는 방언니 때문에 괴로워하는 후배를 위해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4학년 선배 언니를 퇴사시켰던 일 등, 이 모든 것이 그때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었으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세월의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홍일점이란 단어도 듣기 어려울 뿐더러 연세캠퍼스에 홍일점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여학생이 증가했고 여성의 사회참여 등 남녀역할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니 3차례나 큰 변화를 겪은 셈이다.

교정을 살펴보면 곳곳에 건물이 들어섰고 학생수는 수십배가 되었다. 더욱 달라진 모습은 교내에 자동차 문화가 생긴 것이다. 또한 내가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에는 연대 앞 철로길 아래를 지날 때도 한 2~3m 떨어져 다녔었는데 지금은 학교 앞을 그렇게 걸었다가는 내 연인이 행방불명 되기라도 할 것처럼 꼭 끌어안고 다녀야 될 만큼 변했다. 연세의 변화가 즉 우리나라의 변화라 생각한다. 그 넓었던 공간이 지금은 넓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학생수와 건물 및 차량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름다웠던 대학 생활이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70년대의 대학 생활이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21세기를 곧 맞을 우리

후배 연세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고개 돌려 세계를 보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름다웠다고 간직하는 추억의 세대에서 한 세대가 넘어가는 지금의 세대는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이다.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니 흔히 듣는 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소리한 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대는 산업사회의 끝자락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 정보사회에선 모든 게 시시각각 달라지고 1초 간격으로 세대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남의 일이 아님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나는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 출신인 내가 1970년 처음 서울 땅을 밟아 보았고 2년 전 남편 따라 1년쯤 외국에서의 또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절감했다. 그리고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다. 아니, 전에는 그런 생활을 접해보질 못했으니 자꾸만 좁아지는 나의 하늘과 우리식의 사고방식을 답답해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자기식의 생각에서 틀을 깨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황 Y의 특권으로 2년 뒤 있을 나의 25년 재상봉 시간을 앞당겨 참여하면서, 내 젊은날의 열정과 방황을 숨겨진 연세 캠퍼스로 달려간다.

연세백영



다시 선택을 해도 간호학과를



김 윤 희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4 간호학과 입

꼬불 꼬불 더 이상 차가 들어 갈 수가 없다. 울퉁불퉁한 발 끝자락에 차를 세워 놓고 전혀 사람이라곤 할 것 같지 않은 허름한 흉갑집을 향해 걸어간다. 올라리는 없고 앞뒷문은 뒤편에 마주 돌려 저 멀리 누워 있는 산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온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날려갈 것만 같다. 방안을 들여다보니 가재 도구란 게 찌든 불판 1개와 대장간 불에 달구어 만든 도마 위의 식칼, 그리고 플라스틱 밥그릇 몇 개가 모두이다. 마치 등산 왔다가 잠깐 풀에 놓은 짐 같다.

우리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다 보는 사람은 마치 문명의 이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동굴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할멈같은 모습이다. 얼굴은 더럽고 속내의 같은 걸음은 한번 사서 걸친 이래 한번도 빨아 입은 것 같지 않고, 열 손가락 끝마디 마디는 가시덤불 엉켜있듯 거칠기만 하다. 밤에 걸친 빛 바랜 초록색 양말은 바닥은 남아 없고 발등만 덮고 있다. 가난이 덕지덕지 붙은 엄마의 모습은 우리들의 가슴을 찢는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교수님과 함께 가정방문 나왔습니다." 16세에 발병되어 16년간 집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서른 두 살의 딸을 만나보고자 방문하였다. 3남매중 막내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다닌 똑똑한 아이였기에 기대도

켰으나 너무나도 절망적인 가난한 집안 환경과 무지한 가족들과의 관계속에서 단단히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것 같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남편의 술치닥거리, 시어머니의 병치닥거리로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자녀들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엄마의 모진 인생이 막 내를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말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지역 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만성 정신장애자들을 가정방문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정신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한 것과 이러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너 지금 어느 학과 원서 넣으려 가니?" 간호학과 선택을 반대하고, 서울로 원서 제출하러 가는 나를 가로막던 오빠와 외대나 약대를 선택하라고 교무실 창가로 끌고 가 수차례의 설득을 시도했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때 이미 나는 양호 선생님(59년입)의 호의로 며칠 전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난 뒤 연세의료원 및 간호학생 기숙사 등을 둘러보고 간호학과 선택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아름답고 세련된 병원과 외국잡지에 서나 봄직한 기숙사 라운지,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의 나이팅게일들,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충격으로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곳의 아름다움을 계속 머리속에 그렸다.

동경했던 나의 대학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림 같은 병원과 라운지가 있는 기숙사에서 하얀 나이팅게일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나이팅게일의 생전 모습과도 같이 흰 유니폼을 입고 기초간호학 이론 및 실습을 완벽하게 강의해 주셨던 K 교수님의 모습, 진짜 골반과 태아모형을 때시간 들고 들어와 명쾌한 강의로 완전학습을 시켜주셨던 C교수님의 수업, 골격계를 배우던 중 샘플로 보여준 인간의 척추뼈 한 개가 분실되자 그 한 개의 등뼈를 찾기 위해 일년 내내 들

볶임을 당했던 P 해부학 교수님의 수업은 먼훗날 교단에 선 나에게 좋은 교수모델로 남아 있다.

정신간호학을 주요전공으로 하면서 강단에 선 나는 특히 인간행동 이해의 베이스캠프라 할 수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심취하게 되었다. 인간을 정신적 에너지 체계로 파악하고 자유연상방법을 통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정서적 상처를 분석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에 숨겨 있는 욕구와 소망을 탐색하고 수용하여 더욱 성숙된 인격적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정신분석 이론은 연구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요즘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장애자들의 가정방문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면서 예전에 한쪽으로 밀쳐 두었던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에 행복을 느끼며 전공을 다시 택한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간호학을, 그 중에서도 정신간호학을 택하리라 생각한다.

연세백양



"아버지 정인보 선생을 그리며....."



정 명 완
% 사학과 입

육이 오, 벌써 50여 년 전의 일이다. 유월이 되면 가족들은 때로 눈물을 글썽이며 예전의 기억들로 가끔 멍해지기도 한다. 우리 팔남매는 늘 아버지, 어머니의 등근 사랑 아래 남부러울 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방 아래에는 늘 신발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다. 학교에 다녀오면 "지 비 아" 라고 장난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며 방으로 달려가 재롱을 부리곤 했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을 귀찮아 하시는 기색 없이 그런 우리의 재롱에 응해 주시며 즐거워 하셨다. 친구들은 소문으로 "너희 아버지 엄하시지 않느냐"며 반문하다가 우리집 대문에 들어서면 "어쩌면 아버지가 너희들과 노래도 부르며 놀아주시니" 하며 더불어 기뻐하기도 했었다. 그 친구들도 우리 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니와 설거지 하면서 '켄터키 옛집에 햇빛 비치어 여름날 검둥이 시절 ~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으면, 어느 틈에 아버지는 "옥수수는 그래 벌써 익었니?" 하고 농담을 건네시며 부엌에 있는 우리들을 챙겨주시곤 하셨다. 숙제를 하고 나면 걸표지를 그림으로 곱게 꾸며 주시기도 하시던 아버지의 손길, 성적표를 받아오면 "너희보다 공부를 잘한 애들도 많지" 하시며 늘 다독거리 주시던 그 마음, 요즈음 어른들처럼 "공부 좀 해라" 하고 다그치시기도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그런 아버지의 푸근했던 그늘을 잃어버린 지 어느 사이에 꽤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육이오 즈음에는 의사셨던 친구분 댁에서 방을 마련해 주시어 어머니와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언니와 오빠들은 모두 선산의 다락방 천정에 숨어 살았는데, 언니는 눈치보면서 시중을 들고, 서울과 시골로 어른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연락을 전했고, 제일 어린 나는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 전쟁이 나면서 우리 집은 인민군 대대장 집이 되어 가재도구를 챙기지도 못하고, 댄 몸으로 집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그 해엔 유난히 여러 향아리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가득 담았고, 각종 꽃이며, 딸기, 토마토, 파리 등도 예쁘고 붉게 물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난길을 떠났는데, 남쪽으로 내려갈 방법은 점점 아득해만 갔다. 신경을 몹시도 쓰셨던 탓인지 등창이 나시어 아버지는 몸에서 나는 피고름을 고약과 사향가루로 빨아내며 치료를 받으셔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창이 많이 나아지셔서 아는 분 댁에서 옷가지를

찾아 갈아 입혀드리려고 어머니와 걸음을 재촉했었다. 그런데 옷가지를 들고 돌아온 집 빈방에는 요와 이불만 남아 있었고,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날, 그날은 7월 31일 오후였다. 아버지 옷을 들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물어볼 때마다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집에 가서 조용히 기다려라" 는 대답만 들을 뿐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아버지를 다시 뵈지 못했다.

세월은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가 버렸다. 즐기던 난조를 기르시며 정성을 다하셨고, 매화꽃 향기를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어머니. 저무도록 옷장을 매만지시며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시던 착하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뵈은 지도 어언 20여 년이 되어 간다. 그날은 연세 모임이 있었는데, 야릇한 마음이 생겨 점심을 드는 등 마는 등 하고 어머니가 계시던 오빠 댁으로 가보았다. 어머니는 옷을 깨끗이 입으시고, 곱게 단장을 하고 앉아 계셨다.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 꿈에 너희 할아버지 체구가 좀 크시잖나. 그런데 날 보고 부득 부득 도포를 입혀 달라시길래, 맘을 뽀뽀 흘리며 도포를 입혀 드렸단다. 그런데 큰 황소가 자꾸 내 앞을 가리더구나...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진땀이 나니..."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지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듯 기척이 없으셨다. 두 분의 두터운 사랑을 이제야 다시 나누게 되시는가 하는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다시 6월을 맞이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배풀어 주시던 그 큰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는 했지만, 쓸쓸하게 남아 있는 가슴 한구석의 아버지 자리,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가 텅 하니 남는다. 두 분의 그늘이 아직도 여전히 그림자만 한데 흐르는 시간속에서 이 막내는 또다시 추억에서만 아버지를 뵈고 있다. 연세백양



나의 바램

지난 84년 처음 연세교정에 발을 들여놓은 후 벌써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학석사 과정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2년간 교양영어 강의를 한 후 91년 봄부터 한국어학당의 강사로 일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난 올봄에도 역시 신록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송대를 거닐며 지난 9년간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강사로 일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게 된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연세대학교의 부속기관이다. 이미 세계 103개국의 학생 3만7천5백36명이 어학당을 거쳐갔으며 지금도 1급부터 6급까지 약 540명의 학생들이 하루 4시간씩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교수진은 8명의 전임강사와 7명의 전임대우강사, 그리고 73명 가량의 시간강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73명중 50명이 모교 졸업생으로 모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그리고 그중 94%가 여성이다.

연세의 우수한 여동생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사회조직은 아마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는 대학이 많지만 연세대 한국어학당만큼 우수하고 인기있는 곳은 없다. (자화자찬?) 해외에서도 연세대학교는 몰라도 한국말을 배우려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가야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이정은

현 한국어학당 강사
'84 영어영문학과 입

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LA에 개원한 한국어학당 본교에서 과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LA한국어학당은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 민족 문화 교육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한편 남가주지역 연세동문들의 힘을 모아주는 역할 또한 일부 담당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대학의 언어 교육기관이 해외에 분교를 세웠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렇듯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역량을 펼쳐나가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님께 감사드린다. 어학당에서는 보통 한 학기에 (10주) 적으면 20명, 많으면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루에 4시간씩 1주일에 5일을 만나니 나중엔 성격과 습관, 생활의 고민까지 환하게 알 정도가 된다. 1급때 아, 아, 어, 여를 배운 학생이 1년후에는 "세월이 유수갑아요"

라고 말을 걸어온 그로부터 반 년 후에는 한국의 제반 사회문제를 유창하게 논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 가슴에 꽃을 달고 어학당을 졸업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전해오는 감동과 보람을 느끼곤 한다.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있는 힘을 다해 가르치고 나면 오후에는 기전택진하여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그깟 몸의 고됨은 아무 것도 아니다. 물론 때로는 선생님의 노력과 기대를 여지없이 부수는 게으른 학생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갑니까? 갑니다"를 열심히 가르쳐도 언제 배웠냐는 얼굴로 앉아 "가답니까?"라고 말하는 학생을 볼 때는 기운이 쏙 빠진다. 허나 역시 미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중급 이상의 학생들은 첫날 자기소개할 때 종종 나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햇수를 밝히고 이 직업이 나에게 주는 기쁨에 대해 말한다. 나는 비록 한 자리에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배우는 가운데 나의 세계가 넓어짐을 느끼는 것이 행복하다고, 혹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매력덩어리인 이 직업을 선택하여 일생을 감동 속에서 살고 싶다는 나의 바램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연세백영**

아직 껍질이 단단하지 않았던 그 시절



황경신

시인, <PAPER> 편집장
'84 영어영문학과 입

"대학 시절에 꼭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곰곰히 기억을 더듬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별다르게 '꼭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나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아주 의외라는 표정으로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진실이었다. 나의 대학시절은 짝사랑과 첫사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사랑들,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다웠던 친구들과 선배들, 세미나들과 시위, 연고전과 축제, MT와 농촌 봉사활동, 배케트와 릴케와 브레히트, 들국화와 도어스, 그리고 아득한 희망과 끝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시험이 끝난 토요일 오후, 논지당의 조용한 적막이라든가, 바람부는 청송대에 나즈막히 밤이 깃드는 모습, 은행이 노랗게 물든 잎을 가만히 떨어뜨리던 백양로, 우리가 '굴고다의 언덕'이라고 불렀던 종합관 지하의 매점같은 것들이 두서없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멍멍해진다.

오래된 사진 한 장도 생각한다. 그 사진 속에는 갓 대학생이 된 내

가 철없이 웃고 있다. 내 뒤편에는 수없이 많은 개나리꽃들이 봉오리를 터뜨린 채, 역시 철없이 깔깔거리고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맞은 봄, 개나리와 진달래가 교정을 가득히 채우던 그 맘때,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카메라를 들고 친구들과 찍지어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던 시절, 같은 과 친구였던 해석이, 정은이, 그리고 미영이가 그 사진속에 있다. 그 사진속의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다가올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리는 눈을 한 채 웃고 있다.

불안하고 어설픈 시절이었지만, 무엇 하나 덜어낼 것도 없는 채로 완벽한 시절이었다. 그 시절의 꽃들은 떨어지고, 친구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갔다. 그리고 나는 세상 어디쯤으로 흘러들어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가끔 꿈 속에서 숨막히게 진한 그 시절의 꽃향기를 맡는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쉽게 울고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아직 껍질이 단단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나일 것이다.

그런 나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내게는 지금도 학교를 다시 찾는 일이 무겁게 느껴진다. **연세백영**

컴퓨터 교육을 받고 나서



유영희
'66 주생활 입

해마 다 신년이면 새로운 결심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제대로 실천을 못했다. 그러나 99년은 드디어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작년 여자 동창회 송년회에서 컴퓨터 특강 안내를 받고는 즉석에서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기에 내 문의 최신행 컴퓨터를 거실에 마련해 놓은 일이다. 선착순 신청에 지원자가 넘쳐서 부득이 한 강좌를 더 구성하였다.

작년 여름방학 여동문회 임원 중심으로 특강을 받은 결과 전 연세 여동문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실시를 했던 것이었다. 장소는 연세의 제일 높고 먼 위치에 자리잡은 신 경영관에서였다. Computer를 끄고 켜 줄도 두려워했던 왕초보 모두를 Internet이며 정보 탐색이며, E-mail, 엑셀, Power Point로 슬라이드 Show까지를 즐길 수 있도록 카드, 명함도 만들수 있도록 50년대 학번 대선배님과 83학번 후배까지 함께 어우러져 배운 열기는 추운 겨울을 잊게 했다. 두려움 없이 너무나 재미있고 자신감이 들도록 편하게 강의하신 이성철(박사과정)선생님 덕분이였다. 너무나 수업태도가 열의에 차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선생님도 다른 대학이나 외부 회사 강의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이라며 칭찬(?)도 아끼지 않으시며, 신바람을 주던 한마음의 자리였다. 배움을 같이하는 컴명탈출! 어쨌든 동문이라는 것이 고맙고, 아

름답고, 정겨웠다. 이전 소원했던 먼 곳에 있는 친구와 E-mail도 할 수 있고, Internet에서 제 공받을 수 있는 Service종류도 너무 많음을 알고 활용하게 되었다. 신문의 Internet Life란을 즐겨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2000년 Y2K 해결책에 함께 관심갖고, 같이 호흡하고 TV뉴스에 정보 용어도 제법 알아듣는다는 것도 기분 좋은, 살맛나는 일이다. Lee선생님은 손주와 함께 컴퓨터 앞에서 슬라이드 쇼를 하며 놀아주시는 신세대 멋쟁이 할머니가 되셨고, O선배님께서 제주 농장에서 글 경매도 컴퓨터를 이용하셨다는 후문이다.

K동문은 아들이 엄마와 요즘 대화가 가능할 줄 몰랐으며 기뻐하는母子 모습에선 경년기 우울증도 사라진다고, 또 computer가 겁나서 지나다니지도 못했는데 재미있다고, 혼자 책을 보면서 컴퓨터를 더 할 수 있게 됐다는 동문, 게임으로 밤샘을 하는 아이들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동문...

컴퓨터 1차(20명 강의받음)가 끝난 날 "간밤에 내린 첫 함박눈이 너무나 소담스럽다며, 하늘에서 우리의 컴퓨터入門을 축하해 주는 듯 하다고 보내온 후배 인규의 첫 E-mail이 지금도 소중하여 다시 한번 꺼내 보고 간직한다.

세대를 넘어선 선 후배가 함께 한 배움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확인 학습 한다며 선생님을 괴롭혀

가며 박사과정 팀으로 이름부친 몇몇 동문들은 지금 여름방학을 손꼽아 기다린다. 컴퓨터 특강으로 알게 된 선 후배님과 자주 연락하며 동문회 활성화에 열심을 내는 모범 동문님들 모두 컴퓨터를 용기있게 배운 덕 아닌가 한다.

지난 주 설악산에 가서 디지털 카메라로 35디스켓에 백담사 계곡을 촬영하여 컴퓨터로 그 영상을 보았다. 컴퓨터를 활용하게 된 나의 변신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여동문회를 이끄시는 회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연세백양**

* 1인 1 E-mail 갖기 운동

저희 여동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유사한 분야의 동문끼리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선 이순희 여동창회 회장 E-mail 주소 isnh@galaxy.yonsei.ac.kr 이며 왕세경 편집위원 E-mail 주소 Hwangbo3212@netsgo.com 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글, 근황, 소식을 알려주시면 다음 '연세 백양'에 게재하겠습니다.

* 컴퓨터 강좌 안내

이번 여름 방학 중에 컴퓨터 강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 TEL. 365-0631-3 여자동창회 간사 김혜진 대리
TEL. 373-2868 유영희



세 대 차 이



양 선 영
사회학 대학원 1학기
94 사회학과 입

힙합, 그리고 격세지감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생들 사이에서 '힙합'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저런 저 똥뽀 바지 좀 보게." "돈도 안 주는 길청소들 왜 니들이 다 하고 다녀 다니길!" 심미안에 큰 충격을 받은 어른들의 적나라한 경악에도 아랑곳 없이 아이들은 우우 바지에 똥을 싸고 바짓단 헤지도록 길거리를 쓸고 다녔다. 나는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며 새롭게 출현한 경향을 살피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도록 조심하며 심정적으로 어른들 편에 동조하고 있었다. '아... 믿기 힘들다. 내 감수성은 이미 구닥다리라고 말았나 봐.' 나는 레이어드 룩(마구 겹쳐입는 패션)을 거쳐 그런지 룩(매우 거지같이 입는 패션)에 심취한 세대다. 한여름에도 겹겹이 싸입고 돌아다니 어머니의 염장을 지르고 헤질대로 헤져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면 딱 알

맞을 옷을 헌옷상점에서 사들고 와 불쌍한 아버지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분들의 속은 터지든 말든 치렁치렁 풀어헤친 머리로 눈은 다 가려 덮고 찢어진 청바지를 거지같이 입고 다녔다. 부모님의 구닥다리성을 비웃으며.

힙합패션의 출연으로 나 역시 동일한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납득하기 힘든 정서의 차이말이다. 내가 이미 전위의 최전방에 서 있는 10대가 아니라 충격, 나보다도 훨씬 더 강해진 그들의 자기 표현을 인정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나는 꽤 성공적으로 소화해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 나름으로 두고 나는 또 나대로 잘 살았다. 그랬는데...

10대들, '학교 밖의 그들'에 불과했던 그 아이들이 97년을 즈음해서 캠퍼스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신촌에서는 술집 앞에서 팔을 잡아끄는 10대 뽀끼들로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과 함께 대학으로 들어왔다. 이제 '학교 밖의 그들'이 아닌 '학교 안의 우리'였다.

두 번째 충격 역시 나는 훌륭하게 극복해 냈다. 내가 1학년 때 대선배들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내게 보였던 놀라움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피차간에 그것은 불쾌한 감정이 아닌 새로운 충격이자 생산적인 감정이었다. 나 역시 새로 '우리'가 된 '힙합'의 그들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터

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문득문득 '와... 세월이란 게 정말 빠르구나.'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대인?

어쩔하도록 빨라진 변화속도 덕분에 세대차이는 학년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90년대의 학번들은 7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하는 식으로 10년 단위로 묶이지 않는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려 하고 스스로를 차별화한다. 90년대 학번인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머니 세대도 아니고 언니 세대도 아니며, 교수님들, 선배들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거라 자부했다. 나는 충분히 젊고 능력도 있으며 구시대로부터 탈피해 있으니 당연히 그러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졸업을 앞두고 폭삭 늙어버렸다. 기진맥진해 돌아보니 언니나 선배들은 물론 어머니, 교수님까지도 나와 동시대인이었다. 대학 4년 동안 학교 안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새로운 생각, 변화된 내일이었는데, 그 내일이 막상 오늘이 되고 보니 내가 앉을 자리에 놓여있는 것은 47년 연대 입학 여학생 1호였던 열명의 대, 대, 대선배들이 앉으셨던 바로 그 의자였다. 몇 년마다 새로 칠한 각양각색의 페인트가 부스러져 떨어지는, 너무 심하게 더께가 앉아 우리 학번들을 위해 학교와 사회가 준비해 주신 새 페인트가 잘 발라지지조차 않는 그 옛날의 낡은 의자. 그 의자결에 선 연세는

"우리는 여성들을 위해 최초로 의자를 만든 학교입니다" 라며 큰기침을 '흠흠'하고, 정부는 그런 연세에 대대적인 지원사격을 고려하고,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이상을 가진 사학의 명문이라며 호모의 시선을 보낸다. 달리 앉을 자리가 없는 나는 또 그렇다고 너무 낡아 위험해 보이는 그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해서 당황한 채 의자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러다 소나타Ⅲ 정도 탄 왕자님이 지나가며 '야, 타!' 하면 난 홀랑 그 차를 타버릴 지도 모르겠다. 떠나는 내 풍무니에 대고 연세는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제 몫도 못하는 여학생들만 자꾸 늘어나니 이거 원 무슨 경쟁이 되겠어?"

총'여자'동창회, 여자라는 문제의식

상대적으로 큰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사회와 유기적인 연관속에 존재한다. 남녀 차별적인 사회에 있는 대학은 그 사회적 풍토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그러나 역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대학이 먼저 변한다면 그 변화의 파장으로부터 사회역시 자유롭기 힘들다.

어느 영역이나 선진을 달리고 싶어하는 연세는 그러나, 여성문제에 있어서만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척'하는 남성사회의 전략을 따르며 성차별의 전통을 방치하고 있다.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한 연세의 소극성은 연세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가

남녀 차별적이라는 사실때문에 이론의 여지없이 유죄다. 성폭력 학칙제정에 귀기울이지 않는 연세, 해마다 증가하는 여학생 수에 아랑곳없이 여교수 비율은 6, 70년대 수준을 유지하는 연세, 취업문제와 같은 사회의 만성화된 성차별을 해결하는 데 별 관심없는 연세. 이런 연세는 연세의 여성이 제대로 달리지 못해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불만스러워할 뿐, 그녀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차별 받는다는 것도, 사회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레이스를 방해한다는 것도 알려하지 않는다. 알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당연히 개선과 변화는 요원한 일이다. 그 오랜 세월, 각기 다른 세대를 살아갔음에도 동일한 좌절을 경험해야 했던 연세의 여성들에게 연세의 침묵은 유죄다.

나는 대학 동문회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연줄로 똥뽀 똥뽀 사회이며 그 연줄의 3인방으로 학연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여자 동창회의 모태인 백양모임이 출발한 문제의식은 이러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총동창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여자'동창회가 필요했던 것은, 여자 동창을 찾기위해 그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연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가 끊임없이 여성을 물어버려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 연세조차 이러한 성차별에 연루

되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중요성과 가능성 때문에 이곳 '연세'에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총여자동창회의 위상이다. '연세인'으로서의 나는 차라리 많이 가진 자에 속한다. 문제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다.

어떤 불안

다시 봄이 왔고, 여전히 힘차게 백양로를 활보하는 '힙합 패션'에 새로운 유행으로 변했던 '촌티 패션'(복고 형식으로 촌스러움의 극단을 지향함)이 가세하게 되었다. 또 다시 세대교체다. 같은 90년대를 대학에서 살면서도 나오는 사뭇 달라 보이는 그들을 보며 세대차이를 절감한다. 그러나 생각 저편으로부터 나를 엄습해 오는 불안이 있다. 이렇게나 다른 저들 역시 대학 생활이 후반부로 접어들면 여자라는 이유로 결국 나와 똑같은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결국 우리는 90년대 학번으로 전혀 무리없이 묵이고, 그 90년대 학번이라는 건 80년대, 70년대, 60년대, ...

그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세대 차이가 아닌 자신의 동시대인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다. 여성이라는, 죄 아닌 죄로 말이다. 연세백양

디지털 경제와 여성의 역할

우리는 오늘날 정보화라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저물어가고 있는 지난 20세기의 산업 발전 원동력은 1831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82년 최초의 발전소가 세워진 후 전기를 실용화하는데 50년 정도가 소요되었고, 전체 공장과 가구의 80%에 전기가 보급되기까지는 그 후로도 50년이 필요하였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정보화의 물결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라디오가 5,000만 청취자를 확보하는데 38년이 소요되었고, TV는 13년이 걸려 5,000만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후 5,000만 명이 사용하기까지는 불과 4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천만대 이상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도 1억 5천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20여만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서비스중이며 네티즌이 4백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이러한 정보화의 배후에 있음은 물론이다. 인류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ENIAC)은 길이 3미터, 폭 5미터로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초당 5,000회의 연산 능력만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 가정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PC는 초당 4억 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호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8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구리선을 이용한 전화통화는 초당 1페이지 미만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카락만큼 가는 광섬유 한 가닥을 이용해 초당 9만권의 책과사전 분량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는 "만약 컴퓨터 산업분야의 기술 발전속도가 자동차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대당 25달러에 리터당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이라는 비유로 디지털 혁명을 비유하기도 한다.

최근 정보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이다. 1992년 이전에는 인터넷이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인터넷을 비

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2년에 들어와 수익사업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마케팅을 도입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의 확산에 공헌한 또 하나의 요인은 웹(World Wide Web)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터넷 표준의 확산이다. 웹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기술이다. 웹은 문자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를 전달하는 그래픽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일반대중들도 인터넷을 두려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이 전자 상거래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란 기업간 거래나 소비자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전자상거래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판단된다. 지난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미국은 "인터넷 상거래 무관세" 협정을 주도하였는데,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경제가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이버 공간내의 서점인 아마존은 1998년 한 해 동안 150여개 국에 퍼져 있는 620만 고객을 대상으로 10억달러의 도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 아마존은 창립한 지 불과 3년 만에 최대의 기존 서적 유통 업체인 반스앤노블의 기업가치보다 2배가 큰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산업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마존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연동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시스코는 매월 4억달러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간 4억 달러에 해당하는 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여객기 좌석예약 시장에서 여행사가 중요한 유통 채널의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온라인 여행사의 출

현으로 기존의 여행사들은 여행패키지 개발과 같은 새로운 부가 가치를 개발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 경제와 비교할 때 비즈니스 게임의 규칙이 틀리며 따라서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 지난 30여년간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제조나 건설 분야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섬세함보다는 남성적인 추진력이 요구되었고 비즈니스 상담 등이 술좌석에서 이루어지는 관행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게임의 룰이 다르다. 기업간의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고 술좌석이 아닌 사무실에서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비즈니스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커지며, 남성적인 추진력보다는 섬세하고 치밀한 여성스러움이 보다 유리한 분

야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에서는 여성들의 운신의 폭이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경제활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여성들은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이러한 기회를 아직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일례로 미국내 인터넷 사용자 중 여성 사용자는 남성 사용자에 거의 육박하고 있으나 국내의 네티즌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연세대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컴퓨터와 연관된 분야는 남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연세의 여성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보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정보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연세백양**



성장호르몬은 회춘의 묘약인가?



이 명 희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73 생물학과 입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람 성장호르몬이 유전공학적으로 생산되었는데 노화를 멈추고 다시 젊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신있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사람 성장호르몬은 80년대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세계 최대 유전공학 회사 지넨테크(Genentech)사에 의해 처음 유전공학적으로 생산, 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회사의 이름난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모양이다. 지넨테크사가 있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는 바다에 접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거의 연중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로 미국인들이 선망하는 도시의 하나이다.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버클리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도 이곳에, 정확히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다.) 요즘 미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실리콘 벨리'도 바로 샌프란시스코 남쪽 근교 Bay Area 지역으로 야후, 넷스케이프, 애플, 인텔 등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본

사가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들 엄청난 회사들은 막상 가보면 높아야 45층이고 대부분 깔끔한 조경과 나무 숲에 둘러싸인 평범한 미국식 단층 건물들이다. (첨단 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결재, 자료 보관, 화상 회의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모여 업무를 볼 필요가 없다.) 실리콘 벨리의 컴퓨터 업체들 사이 사이에 위치하면서 비슷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있다. 바로 생명공학 회사들이다. 미국 내 유전공학 혹은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의 70퍼센트 이상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 알토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 벨리에 집결해 있다. (미국 21세기 핵심 사업으로 기대되는 컴퓨터와 생명공학 업체들의 본거지이니 이 지역 부동산 값 상승률은 미국내에서 손꼽힌다.) 세계 최초의 상업적 유전공학 기업인 지넨테크사도 이 동네에서 시작하였으며 주요 판매상품이 사람 성

장 호르몬이다. 사람의 성장호르몬은 원래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데 성장기 동안에는 근육과 뼈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신체 내부기관과 면역계의 성숙을 돕는다. 따라서 성장기에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면 난쟁이가 된다. 유전공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장 호르몬을 사체의 뇌하수체에서 추출하였기 때문에 거의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그러다 80년대에 사람유전자 클로닝에 의해 대량 생산되면서 인슐린, 인터페론 등과 함께 돈으로 사고 파는 '인체 생화학 물질'의 하나가 되었다. (혈액, 안구, 신장, 심장과 같은 인간신체의 일부들은 이미 더 오래전부터 특히 인도와 같이 빈곤한 국가들에서 값나가는 상품이 되었다.) 미(美) 식품의약국은 이 호르몬 제제의 사용을 발육부진 등 신체가 정상수준의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의 치료 목적에만 허가하고 있다. 미국 내에 성장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되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이 '젊어지는 약'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부디 신중하기를...

기능 부진 어린이는 2500명 정도인데 이 호르몬 제제 시장 규모가 수백만 불에 이른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제제가 다양한 신체미 근육 단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대한 규모의 암시장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호르몬은 스테로이드 제제와 달리 경기 전의 약물검사에서 적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엄청난 개발비로 탄생한 사람 성장호르몬은 몇 안되는 환자를 쫓아다니며 얻는 이윤의 제한성 때문에 새로운 환자 물색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치료약이(대부분의 약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후에 개발된다) 창출해 낸 환자가 키 작은 어린이와 노인들이었다. 키가 작은 것도 늙은 것도 병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키 작은 아이들은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결핍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상의 지체 때문인데, 이 두 원인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큰 키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성장호르몬 제조회사에게는 반가운 기회가 되었다. 이들은 때때 미국에서 탄생하는 아이들 중 신장이 최하위에 속하는 3%의 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크게 성장시키더라도 한 집단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과 키가 큰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

라는 점이다. 인간 성장호르몬 시장은 영원히 계속되는 셈이다. 성장호르몬이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 놓은 값비싼 약을 소비해 줄 또 다른 부류의 '환자'는 노인들이었다. 대부분 남자의 경우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성장기 이후 자연적으로 차츰 감소하여 40세 이후 중지된다. 그런데 호르몬 제조회사들은 1990년 초 성장호르몬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근육 쇠약과 지방질 축적과 같은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역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속 분석 결과 성장호르몬 사용을 중지하면 오히려 노화가 가속될 뿐 아니라 사용 부작용으로 관절이 부어 오르는 증상, 남성의 경우 유방확장, 여성의 경우 유방암의 성장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음이 알려졌다. 그 외에도 성장 호르몬 사용과 관련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 호흡기 질환, 악성 뇌암, 백혈병의 높은 발병률 등의 부작용이 경고되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에도 성장호르몬 투여를 중지하면 오히려 성장이 더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분명히 보고 되었다.

요즘 인터넷에는 자식을 못갖는 불임부부나 동성애자들, 혹은 후에 건강한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클론(인간 복제)을 만들어 두라고 홍보하는 기업이 등장하였다. 인체 복제 비용은 20만 불(우리 돈으로 약

2억 5000만원)이며 추가로 5만 불만 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를 위한 세포 저장 서비스를 덤으로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첨단 유전공학의 현장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생물 공학을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된 복합적인 사회, 윤리, 도덕, 문화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나라대로의 연구와 관련 제도 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우려된다. 사람 성장호르몬을 수입하려는 제약회사들과 이것을 앞서서 복치며 홍보하는 메스컴은 몸에 좋다면 바퀴벌레라도 잡아 먹을 국민들에게 성장호르몬이 '젊어지는 약'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부디 신중하기를 바란다. **연세백영**

도전하고 성취하라!



김혜근
현 HSBC소매금융 대표
74 주생활학과 입

오랜만에 찾은 모교 캠퍼스는 정말 아름답다. 오늘 후배들과 편안하게 내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현재 홍콩 상하이 뱅크 서울지점의 소매금융 대표를 맡고 있다. 78년에 주생활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Chase Manhattan Bank에 입사하여 96년까지 기획, 소매금융, 기업금융 심사역 등을 담당해 오다가 3년 전, HSBC로부터 한국에서 소매금융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한번 맡아서 해 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세계 최대의 금융그룹 <홍콩 상하이뱅크>는 그간 기업금융업무만 해 오다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보고 한국에서 소매금융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매금융이란 일반인을 고객으로 하는 예금, 대출, 외환,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백지 상태였기에 시장조사부터 시작하여, 전산 시스템 구축, 상품 개발, 직원 채용에 이르는 제반 작업을 마친 끝에, 98년 9월 강남구 삼성동에 삼성지점을 최초로 열었고 연이어 올 1월에 압구정 지점을 오픈하였다. 현재는 서울은행 30여 개 지점 인수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21년 6개월이란 긴 세월을 금융계에 종사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 덕분이었다.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는 아무리 여자라도 반드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가정대를 졸업한 후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국내 은행보

다는 남녀차별도 덜 하고 여유있어 보이는 외국계 은행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외국 은행은 성차별, 휴가, 보수 문제 등의 여건이 국내 은행보다 좋지만 그만큼 매우 철저한 조직이다. 권한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매우 분명하여 직무 기술에 명시된 본인의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 그러나 능력과 실적만큼 평가받아 상여금, 승진, 우리 사주 등이 차등 적용되므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여성에게 금융계와 교육계의 직업이 참 좋은 것 같다.

특히 외국 은행을 추천하고 싶다. 물론 이곳에서의 경쟁은 치열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학연, 지연 등 인맥이 지나치게 중요시 되는 풍토이므로 여성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치밀하고 정확하며, 끈질긴 근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언어적 달란트가 월등하므로 특히 외국은행 같은 곳에선 장점으로 작용한다.

조직에서 나를 테스트하는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해선 평상시에 준비하고, 업무를 열심히 하며 대인관계를 폭넓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경우 여자로서는 어렵다는 차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신혼시절 홍콩에서 열리는 장기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때 남편을

설득하여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옴으로써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HSBC의 제안 역시 대형 프로젝트였으므로 두렵기까지 했으나 치밀한 시장조사 결과 희망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 기회를 잡아야 금융계에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불가능이란 없다. 자신이 하는 만큼 보상은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에 부딪치면서 일에 대한 열정과 야망은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버린다. 점차 직업의 세계는 무너지게 된다. 나에게도 고비가 있었다. 첫 번째 위기는 첫아이를 출산한 후 시간에 쫓기며 맞벌이 부부생활을 하던 때였다. 하루 3-4시간을 자면서 일과 가정생활에 쫓겨다니는 가운데 일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과 남편의 외조 덕분에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두 번째 고비는 부장으로 승진하여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을 때다. 주변 동료 중엔 여성이 있었고 전공 지식이 부족하기에 남성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혜근씨 부장인데 그런 것도 몰라요?"라는 말을 듣고 나는 경영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 일주일에 3일 밤을 학교에 다니며 주말에도 집에 일을 가지고 와야 했던 시절, 깨달은 게 있다. "시간은 거미줄이다. 늘리면 늘릴수록 나온다."

쉽게 시간 탓을 하지 말자. 시간은 쪼개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그리고 경험에 비추보면 여성이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절대적 이해와 협조, 육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내 경우에는 남편과 사내 연애 결혼을 한 덕분에 남편의 외조에 크게 힘입었다.

그럼 이제 외국 은행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얘기해 보자. 외국 은행은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라면 영어와 PC를 잘하면 좋겠다. 그러나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다.

우선 지원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사고의 유동성과 창의력 또한 중요하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우리와 토론문화에서 교육받은 외국인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둘째, 원만한 대인관계가 업무적 지식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선 team play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독불장군식인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로 해결하려 든다면 곤란하다. 셋째, 업무에서 한 분야만을 고집해선 안된다. 외국은행은 공채를 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원서를 접수해 놓고 어느 분야를 맡든지 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어려운 면접을 통과한 후 입사하여 첫 1년은 10년을 좌우한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광고 문구

가 있듯이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은 일을 먼저 하며 상사와 동료간의 대인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후배들은 지금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목표가 있겠지만 꼭 자기 일을 갖기 바란다. 사람의 잠재력은 보기보다 무한하다. 내게 능력이 더 있는데 찾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도전하고 성취감을 맛보길 바란다. 그러면 가정생활 역시 부부가 각자 일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아이들 역시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보며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기 발전을 위해 꼭 직업을 가지길 바란다. **연세백영**

주 여학생처와 총학생회
'여성진로개발 프로그램'
(5월20일)의 발제목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



김민정
정치학 박사, 연세대 강사

정치는 여성과 동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여자가 정치학을 전공했다고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본다. 실정치는 있어서도 여성 정치인은 극소수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9명인데 지역구 출신은 2명, 전국구 출신은 7명이다) 여성은 비정치적이라고 인식된다. '남자는 공적이고 공적인 것은 정치적인데 여성은 사적이고 사적인 것은 비정치적이어서' 여성과 정치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인가?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튼은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즉 사회 구성원이 서로 가지기를 원하는 각종 가치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다. 한편으로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치는 구성원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이익의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질서가 민주주의라면 구성원 중 어느 일부분의 배제없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여성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은 정치에 대한 물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성이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성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거나 또는 정치에 의해서 분배받아야 할 이익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뜻이 된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이익을 권위적으로 배분받아야 하고 또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셋째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가진 경험과 지식, 문제 처리방식 등을 정치에 활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민주정치를 이루어야 할 필요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문제를 보고 처리하고, 여성만의 방식을 통해서 가족 사이의 무수한 갈등을 조정하고 화목하게 이끌어 왔다. 이런 경험은 남성적인 경험, 지식과 더불어 우리의 정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뜻에 맞게 사회의 부분 집단을 소외함이 없이, 또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게 권위적 가치 배분을 이루기 위해서 끝으로 여성적인 시각을 통해서 기존의 정치를 보완하여 성숙한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연세백양**

이름다운 치과

BEAUTIFUL DENTAL CLINIC

서정수 (80년 졸)
김영원 (82년 졸)
박준호 (92년 졸)
박주현 (93년 졸)
우상엽 (95년 졸)

백일수 (80년 졸)
김선용 (88년 졸)
박동석 (93년 졸)
이기주 (93년 졸)
박수정 (96년 졸)

평촌 중심상업지구내 국민은행 평촌지점 4,5층 . TEL(대) 0343-385-0123, 080-611-0123



허가번호 가-3604-3-695

ERA® 태광 부동산 서비스 세계적인 부동산 체인

ERA® (Electronic Realty Association)란?

세계적인 부동산 Group HFS 社 계열의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20개국에 4,0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ERA가 전문 시스템과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고민은 ERA에게 맡기십시오!



분당, 용인, 수지 아파트 토지 전문

☎ (0342) 713-7575

이 글은 아버지를 방문한 영춘초등학교
5학년 반수진양의 글입니다.



한국화장품

24

신소 전도체인 PPE와 성체 전해질인 SP-24가 전기의 흐름을 저지할 수 있는 데 비해, 이온의 성분이 높을수록 전도성을 더욱 높여주고 투과성도 향상시킨다.

피터스, 회장프로젝트는 교부한력을 깨끗이 복원 시켜주는 비터올레스 SP-20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무척무척한 교부를 빠른 시간내에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3000톤의 공공 프로젝트는 강력한 공공수출 성장의 결과이며, 이는 1990년
오일 붐 조짐을 보여 주며 90년대 경제적인 기복으로 오일이 커지는 원인
을 밝히게 될 것이다. (출처:)

치위생의 피부접촉을 단계적으로 막아내고 칫솔질과 원인으로 알려진 열라리의 형성을 억제하는 한편 이미 생성된 열라리를 피부 밖으로 밀어내는 (2)로 인해 치위생 시 사용된 MMWD의 높은 분자량을 방지합니다.

파 메 스 프로젝트

PAMESS

기자로써 갖추어야 할 조건



김혜원

연세여성언론인회 부회장
Korea Herald 논설위원
73 신방과 입

77년 2월 졸업 직전 코리아 헤럴드에 입사해 20여 년이 흘렀다. 처음 언론계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여기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활동의 폭도 무척 넓어졌으나, 아직도 기자 사회에서 여기자는 소수에 속한다. 그러기에 기자협회가 있는데도 여기자협회가 있고 회사 노조에는 여성부가 따로 있다. 흔히 여기자하면 활발하고 도전적이며 억척스러운 모습을 상상한다. 사실, 남성우위의 보수적인 언론사에서 쫓겨나 버티려면 그래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기자든 남기자든 기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같다. 여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은 직업을 가진 여자가 일반적으로 겪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자가 편집국내 한 두명이던 시절에는 오기가 중요하였으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력이다.

기자에는 방송기자와 신문기자가 있는데 양쪽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나는 신문사에서만 일을 해 방송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문기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기자는 취재를 해 기사를 쓰는 사람이다. 기사를 구성하는 것은 내용과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글이다. 취재를 아무리 잘해도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빛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글쓰는 훈련이다.

나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저널리즘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전문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기자가 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신문사 시험도 마찬가지다. 영어, 국어, 시사지식에 비해 문장력 평가의 비중이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다. 신문사에 들어간 후에도 대부분은 체계적으로 글쓰는 훈련을 받지 못한다. 선배들이 고쳐주는 것을 참고로 스스로 배워나간다. 그 결과, 신문에서 문법, 논리가 맞지 않는 문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자가 되려는 사람은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글재주가 기자가 되는 데 필요한 전부는 아니다. 기자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업무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재원의 관리는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다. 그러나 사람들 만나는 데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공부를 게을리하기 쉽다. 기자는 세상 일을 그저 그렇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독서와 사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더 많은 훌륭한 여자후배들이 신문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자가 되기를 결심하기 이 전에 내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한다. 연세대학교

언론

온가족 여름휴양지, 수안보파크호텔

월악산 국립공원, 충주호 단양팔경이 함께 어우러진 수안보파크호텔에서 보내는 여름휴가는 특별합니다. 수안보파크호텔의 새로운 명소 노천온천과 실내수영장, 가족이 함께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아트센터, 테니스코트, 헬스클럽, 오락실 등 다양한 레저시설까지 갖춘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온가족이 편안하고 시원하게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내세요.



● 노천온천



● 온천수 실내수영장



● 아트센터



● 테니스코트



● 헬스클럽



한국도자기 가족
수안보파크호텔
SUANBO PARK HOTEL

수안보파크호텔 TEL (0441) 846-2331 ~ 6
서울사무소 TEL (02) 2266-1141 ~ 3

기능과(機能課)와 지역과(地域課)



서 빈
외교통상부 서구과 사무관
92 정외과 입

외교

97. 6월말경 최종적으로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97. 10. 1부터 외무부 서구과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1년 8개월을 외교통상부 서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근무하고 나서 보니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할 당시의 예상과 다른 점도 많았는데, 그런 점은 난생 처음 겪는 사회생활 및 조직생활의 특성에서 수반된 것 같다.

외교부 내 과들은 크게 서구과, 중동과, 북미과와 같은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과와 UN활동이나 통상활동을 담당하는 과(또는 Team)로 구분되는데 외교부 내 사람들은 지역과와 기능과로 통칭한다. 서구과는 서부유럽, 특히 EU국가들과의 일반 협력관계를 담당하는 과다. 물론 내가 담당하고 있는 노르웨이처럼 EU국가가 아닌 경우도 있고, 통상, 투자, 진흥활동 등은 별도의 담당팀이 있지만 대강 우리나라의 대EU외교활동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별도의 통상팀이 있기 때문에 서구과와 같은 지역과의 대부분은 양자

정부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고위인사 방한 및 방문활동, 각종 정부회의 개최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다. 또한 정부활동이란 일반적인 협력활동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국간 협력일반에 대해 늘 주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주한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낯선 외국 외교관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사고활동은 처음이라 재미는 있었지만 상당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사람들이야 모두 우리들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외국 사람들과 외국 외교관들 사이에도 차이가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외교부 내 기능과들은 담당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도 많다. 통상 투자활동을 담당하는 과(대부분은 Team으로 불리지만), UN 활동을 담당하는 과, 전통적인 외부 업무인 여권 및 영사활동을 담당하는 과, 의전(protocol)과, 조약과 등 기능과로 통칭은 되지만 업무상 유

사점은 사실 매우 희박하다. 기능과에서 근무한 적은 없기 때문에 동료들의 얘기를 빌자면 전문분야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구과는 양자 정책협의회 참석, 통상장관 회담 참석, 국제회의 수행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외교활동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일로 외교관으로서의 시작단계에서는 지역과가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폭넓고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확고한 인식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겠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늘 촉각을 세우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공부와 필요하다.

그외에도 'Diplomacy', 소위 '외교적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연세백양

또 한번의 시작의 기회



조 경 화
특허청 심사관
79 세리리 공학과 입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하여 들어왔고, 다시 졸업하고, 그러면서 몇 번의 끝과 시작을 만나곤 했다.

전자재료를 전공한 나는 학위 끝 무렵 재료 전공한 사람이 가기에 생소했던 대기업 반도체 분야에 취직을 했다. 그 당시 '여자 박사'의 취업이 드물었던 탓에 '유명세, 처음' 등의 딱지가 항상 붙어 다녔고 그 대가는 혹독했지만, 많은 캐리어 우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은 옛 얘기일 뿐일테니 생략하기로 한다. 1987년부터 대기업에서 현장관련 연구소, 기술개발, 개발관리 등의 일을 11년간 하다가 지금은 특허 심사관의 업무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업무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색다른 방식으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접근 방식, 책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실제 근무에서 쌓이는 노하우

가 매력이라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모여 한 개의 결실을 만들어야 하므로 본인이 선택하는 방법의 적정도가 "최선"보다는 "차선"이 서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수단일 수 있겠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테마를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정해진 테마를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루면 그 대가는 무형의 기쁨이건 유형의 혜택이든 반드시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즐거움이 있고, 그만큼 본인의 영역도 수평, 수직상승이 가능하다. 단 여러 분야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이뤄 간다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큰 물에서 본인의 일하는 욕심, 방법 등의 제어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술의 근본이며 재산인 특허의 중요성은 기업에서 기술개발에 관련된 일을 할 때부터 느꼈고, 미국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업무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허업무는 변리사 시험을 거치거나 공무원 시험, 기술고시, 특채의 방법으로 특허청에서 일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 특허심사 심판, 소송 업무는 숲과 나무를 조절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된다. 우리 기업의 기술에서 현재 또는 향후 중요기술은 무엇이며, 세계적인 경향의 간파, 기술의 계보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기술력, 즉 출원된 특허를 판단하게 된다. 짧으나마 그동안의 경험으로 캐리

어우먼의 필수요소를 다음과 같이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여러 기능(아내, 어머니 등)을 소중히 다해 내면서 그곳에서 에너지를 얻어 업무와 자기개발에 끊임없이 욕심을 지니고, 억척을 펴야 한다는 점과 인간관계에서는 자기 방어적이기 보다는 우호적이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소중한 재산을 모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소중한 시작의 기회를 선택하려는 우리 백양식구들에게 미리 가고 있는 선배 캐리어 우먼들이 든든한 후원자이며, 일하고자 하는, 일터는 아주 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그 열매는 언젠가는 걸로 드러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부탁한다.

연구원

기업구조조정과 재무조달



한영혜

'87 경제학과 입

필자경력 : 공인회계사 '90년 합격
삼일회계법인 근무
MBA(Wharton School)
INCE아링 증권 근무
현재 법무법인 한미 근무중

기업
영향

온나라가 IMF체제에 들어간 이후로 IMF다음으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일 것이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각 분야, 예를 들면 생산, 인사, 재무 등의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business restructuring을 일컫지만 IMF의 지원을 받게 된 이유가 기업들의 방만한 재무구조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었던 만큼 최근의 구조조정은 주로 재무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구조조정(capital restructuring)이란 쉽게 말해서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자금의 조달을 하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과다한 부채를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실기업의 채권자인 은행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채의 출자전환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최근 활발한 M&A, 외자도입을 이용한 부채탕감, 기타 부채 자기자본 교환(debt-equity swap)등 파생상품들을 이용한 자금의 조달 등도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비단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규제 등의 완화로 인해 재무 관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금융기법들도 한국에 속속 도입되고 있어 이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실무에 접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광범위한 financing작업은 여러 전문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Goldman Sachs 등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과 국내외 증권회사, 법률사무소(law firm),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소규모 투자 자문사(소위 M&A boutique), 그리고 중금사나 일반은행들의 인수합병(M&A)팀 또는 구조조정 지원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각의 업무는 금융기관들이 대상기업의 선정, 접촉, financing 방법의 제안, 실행 등 전 과정에 있어서 co-

ordinator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 컨설팅회사들은 각각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업내용에 관한 실사(due diligence)를 제공한다.

요즘은 국제적인(cross border) financing project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law firm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국의 조세제도나 외환거래 규정들에 의해 거래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는 한다.

따라서 investment banking은 project처음부터 law firm을 선정하여 각종 법률적 자문을 받아 거래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사나 MBA(재무관리 등 전공), 변호사, 기타 증권회사 경력이 있으면 그런 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만하다. 본인도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재무관리로 MBA를 취득한 후 외국증권회사를 거쳐 현재는 law firm의 banking team에서 해외 financing관련 자문 일을 하고 있고 최근 외자를 도입하여 부채 탕감을 한 H그룹 구조조정에 참여하였다. **인재백양**





김 정 진

전 LA동문회장

▶ 오른쪽부터 초대 김정진('59 생물 입)
2대 선정자('63 교육 입)
3대 김영숙('64 의과 입)
4대 이명경('64 사학 입)

질문 :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늘 연세를 사랑해서, 이처럼 멀리에서 오셔서 모교를 방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선 넓은 미국땅에서 어떻게 처음 모이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전에 미국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연세 남동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던 때라 한국사람만 봐도 반가운데, 학교다니 때는 함께 농촌계몽도 다니며 재미있게 놀던 동문을 만났는데도 서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손을 잡을 수 없었고 더구나 아는 척도 못하고 서로 눈만 마주치고 멀리서 쳐다만 보았어요. 왜냐면 그 옆에 부인이 서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닌데 단지 여자와 남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연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였을 거예요. 것처럼 남녀공학에 다닌 것을 몹시 후회하면서 동문은 있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문으로 그렇게 외롭게 미국 땅에서 20여년 간 살다가 어느날 50을 넘긴 여자동문들이 몇 명 모였어요. 그때가 1991년 겨울이었는데 모두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

기에 곧바로 여동문끼리 모일 수 있는 여자동창회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지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1992년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남가주 끝에서 끝까지 사는 동문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한 40여명이 모였어요. 남녀공학을 나온 여자들이기 때문에 동문회에 마음놓고 참석할 수도 없는 소외된 동문들이었다는 것이 억울했던 것이지요.

질문 : 요즈음 얼마나 자주 모이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해서 모인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못했는가 하면서, 지금까지 한자매의 사랑을 느끼면서 두 달에 한 번 모이자고 해 놓고도 거의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그후 동문회 모임에도 어김없이 여동문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여자라고 해서 사랑을 받지만 말고 더 많이 사랑하자"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꼭 찾자" 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기에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봉사하자" 입니다. 현재 남가주 동문회 임원들은 남녀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고, 남가주 동문회가 사랑으로 돌돌 뭉쳐서

- 여동문회 '99년 사업계획 -

3월	정기총회 및 1만 여동문 주소록 발간
4월	이사회 조직
5월	여동문의 날 행사, "연세백양" 발간
10월	국제 여성포럼
12월	송년 모임

어느 때보다도 재미있게 발전한 것은 모두 여동문들의 공로라고 남자 동문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동안 모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기도 하고요, 노천극장 개축기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그곳 남가주에서도 저희끼리 연고전도 하고요, 양로원도 방문해서 봉사하고요, picnic을 갈때면 여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가지요. 지난 해 연세대 외국어학당 LA분교 홍보에도 열심히 봉사하여, 선발대로 온 15명의 여학생들을 초대하여 접대하고, beach등을 구경시키기도 했어요. 또 본교에서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강을 하러 오셨을 땐 낮에는 특강에 참석하고 그날 저녁에 열린 총동문회 연말 파티엔 일론 드레스로 갈아입고 참석하느라 참 바빴어요. 저희가 조금 힘들어도 멀리서 오신 분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었지요.

질문 : 저희 여동문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계시면?

미국 땅에서 외롭게 소외된 채 20년간 동문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과 지금 적극적으로 동문들을 만나고 지내는 세월은 비교할 수 없이 기쁨이 샘솟는 생활입니다.

저는 미 장로교회 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하였는데 그곳은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미국사회에서 남녀를 의식하는 게 우스운 일입니다. 남녀공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학의 명문답게 조화로운 남녀활동으로 우리 연세 동문회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외감을 느끼는 여동문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 바랍니다. 미국 땅에서도 연세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늘 격려해 주며 지원해 주는 쌍 Y 남편을 만나게 해 준 연세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백양**

백 양 소식

● 여자동창회 소식

여동문의 날 행사

5월 29일 토요일 오후4시 총장공관 뜰에서 '여동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3명의 학생, 지현일(교회음악3), 김설나(인문학부1), 박희진(교육학2)에게 장학금 수여식과 자랑스런 여동문, 정을순(54 의학 입), 김소인(57 간호학 입), 서은경(67 식생활 입) 표창이 있었다.

신록의 5월 연세동산에서 그동안 흩어졌던 여동문들이 여자동창회로 결속되어 모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정기 총회

여자동창회는 3월 13일 오후 2시 알렌관에서 총회를 열었다. 여자 동창회는 이 자리에서 정관 개정 및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편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기숙사 학생 10명에게 한 학기 기숙사비 및 식비보조금 5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한, 주순향 감사(61 물리학과 입)에게 20여년간 여자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것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과 천화숙 동문(62 사학 입, 경원대 교수)의 '새로 발견된 청나라 아극돈의 봉사도'에 관한 강연회도 함께 열렸다.



국가 정보원 방문

여자동창회 주최로 내국동 소재 국가정보원을 방문하여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새롭게 단장한 국가정보원을 견학하였다.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정세와 안보의식, 그리고 연세 여동문이라는 자긍심을 높이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이종찬 국가정보원장과 정행자('60 도서관학 입, 여자동창회 부회장) 동문께 감사.

송년모임

여자동창회는 지난 해 12월 5일 서울 클럽에서 송년모임을 가졌으며, 김성록 동문(54 사학 입)과 이금영 동문(56 수학 입)에게 그간 여자동창회 발전에 헌신해 온 점을 인정해 공로상을 수여했다.

여성 포럼

여자동창회는 지난 10월 23일 여성 포럼을 새로 완공된 무악 기숙사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21세기의 연세 여성과 지도자의 역할'의 주제하에 강사 연세대 송복 교수님(사회학)과 김성주(75 신학 입, 성주 인터내셔널 사장) 동문의 주제발표와 김영란(73 정의 입, 여자동창회 총무)동문과 한현주(81 경영 입, 네이버 잡지 사장) 동문의 토론이 있었다. 또한 포럼 후에는 여동문들이 직접 모델로 나선 재미있는 볼거리도 제공하는 패션쇼도 가졌다.

이사회 개최

지난 4월 24일 알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 구성된 이사진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여자동창회 정관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주인을 결의하였다.

● 모교 소식

노천극장 봉헌 및 개교기념일 행사

19만 연세인들의 염원이었던 노천극장이 2년여 만에 드디어 완공(5월8일), 봉헌되었다. 그 축하 행사로 <KBS열린 음악회>와 '한여름밤의 꿈' 연극이 공연되었다.



YERC 완공

지난 96년 3월 기공한 연세공학원(YERC)공사가 끝나, 3월 18일 봉헌식을 가졌다. 연세공학원에는 앞으로 우리대학교 연구소 뿐 아니라 풀무원,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기업체 연구소와 각종 창업 연구소가 함께 들어서 연구활동에 임하게 된다.



고위여성지도자과정 11기 수료식

생활환경 대학원의 고위여성지도자과정 11기 수료식이 지난 해 12월 16일 루스체플에서 열렸다. 박명철 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는 48명의 수료자와 가족, 김병수 총장, 손경희 생활환경대학원장 등 교내외 인사 130명이 참석했다.

● 각 대학 동창회 소식

생활과학대 여동창회

생활과학대 동창회는 5월 8일(토) 오전 11시 30분에 신축 생활과학대학 계단 강의실(B111호)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5대 동창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으로 서은경 동문(식품영양학과 4회,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과장)이 신입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최이순 기념을 개관

생활과학대학에서는 5월 8일(토) 오전 10시에 생활과학대학 개관행사와 최이순 홀 헌판식 및 부조 봉헌식을 가졌다. 최이순 선생님은 생활과학대학 초대 학장이셨으며 1987년 세상을 떠나신 후 선생님의 숭고한 교육철학을 영원히 기리고자 동문, 유족 및 친지, 교직원들의 기금 모금에 의해 최이순 기념홀을, 99년 2월 1일에 봉헌한 생활과학대학 내에 건립하게 되었다. 최이순 기념홀은 각종 시청각 기자재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다목적 홀로서 학술회의, 전시회,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후학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과학대 동창회 임원명단

고문	김병구(식,1) 이영자(식,1) 이진안(의,4) 김혜원(식,1)	각과 대표 이사	고애란(의,14) 이종호(식,12) 하미경(주,14) 김명순(아,5)
자문	이양자 학장 손경희 원장 이기열 명예교수 김혜경 명예교수	서기 (문서)	엄영란(식,14) 최은정(식,18) 오순실(의,8)
감사	이상선(의,1) 윤 선(식,4)	재무	김정애(주,4) 김은희(식,7) 조성숙(식,15) 이민준(식,18)
동창회장	서은경(식,4)		
부회장	이인규(주,4) 이 영(의,5) 이경순(의,6) 곽동경(식,8)	홍보	유혜선(주,6) 문송희(주,6) 유희인(주,9) 김 행(식,14) 왕명현(의,5) 양일선(식,6) 김전숙(의,2) 손혜영(주,7) 박경자(아,3) 이인숙(주,9)
총무	윤성렬(주,6) 이희자(식,8)		
출판	김갑영(식,3) 이미화(아,7) 이주현(의,16) 이연숙(주,10) 이숙재(주,6) 곽순연(의,2) 이금실(의,9) 박태선(식,16) 이경희(아,4) 명준옥(식,14)	징학	박점덕(식,1) 이영자(식,1) 권경순(주,4) 황혜숙(주,3) 김정려(식,7) 윤정숙(주,5) 신난숙(의,6) 김광경(의,4) 최 진(아,1) 박정숙(주,6)
		천종숙(의,12)-의.대학원 동창회장 박혜원(식,6)-식.연영회 회장 피영자(식,3)-미주지회장 조영희(주,1)-부산지회장	
섭외	김정식(의,6) 윤화녕(의,9) 김영희(식,10) 유애영(아,1) 지인경(주,9) 민계진(식,10) 이수경(주,2) 임현숙(식,3) 한성숙(식,9) 서은선(주,9)		
천선	임유신(식,5) 이상선(의,1) 김부선(의,6) 신혜란(식,5) 이미배(주,6) 백경희(의,3) 김형미(식,15)	김영인(의,12) 최미라(주,1) 위영희(아,1) 전 신(주,5) 곽정렬(식,7) 오창희(식,4)	

❖ 생활과학대학 동창회장이 되어 ❖



서은경('67 식영 입,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과장)

생활과학대 동창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에 여러가지 면에서의 부담으로 무척 망설였다. 그러나, 모교기관에 재직하면서 동창들의 모교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순종하였다. 본교의 지원 및 교수님들, 그리고 동창들의 각고의 노력속에 새 천년을 바로 앞둔 1999년 올해, 하이테크의 생활과학대학 건물이 준공되었다. 기품있는 <최아순홀>에서 개관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타대학 건물에서 더부살이로 공부하였던 동창으로서 뿌듯함과 감사함 등의 만감이 교차하는 감화를 가졌다. 본 생활과학대 동창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역대동창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교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본 동창회를 통한 돈독한 교류로 우리나라의 어떤 동창회보다 동창들의 참여도가 높고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아름다운 동창회가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여성들이 주축이 된 우리 동창회가 여동문들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생활과학대학, 나아가서 연세대학교가 세계 굴지의 대학이 되는 데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생활과학대학! 환경 친화적인 인간생활을 위한 포괄적인 학문연구의 선두엔 언제나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이 서 있다. 21세기의 꿈을 펼쳐 줄 새로운 터전을 발판으로 생활과학인들에게 한 여성 선각자(최아순 교수님)의 참된 교육정신이 면면이 이어지는 한 생활과학대학은 연세와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낼 것이다.

의과대학 여동창회

99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을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고 김용진(66년 졸업) 회장을 유임시켰다. 임기는 2년.

간호대학 여동창회

• 지난 해 7월 새 세브란스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의 수익금 14,112,192원을 한동관 의료원장에게 전달하였다.

• 김모임('55 입) 동문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축하연을 지난해 9월 22일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병수 총장, 김정례 전보사무장관, 백낙훈 인재대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 지난 해 9월 중앙일보 주최 우리대학이 간호대학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되었다.

• 금년 3월 23일 제 73회 정기총회를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리에 마쳤다.

• 5월 3일 전산초 명예교수님이 대한 간호협회 주관 '간호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5월 8일 연세 동문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런 연세 동문상'을 받았다.

● 여성연구소 소식

여성연구소는 U. B.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중인 여성학 협동과정 설치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98년 11월에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하에 공개강연과 workshop을 개최하였다. UNICEF총재고문인신 구상열 선생님과 전 이화여대 교수이신 박보희 선생님께서 연사로 나오셔서 "세계 주류를 향한 한국인의 자세와 능력개발", "국제 공무원 사회와 한국 여성 진출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는데 최근 인기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다가오는 6월 5일(토)에는 논지방에서 '여성학! 비전업이 필요하다'는 제목하에 workshop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workshop은 남녀공학에서 여성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들과 학내 여성자치운동을 하

는 학생들을 초청하여 각 학교들에서 여성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여학생처 소식

여학생 진로개발 프로그램 실시

여학생처와 총여학생회는 우리 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상경관 B21호에서 '여학생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일 외국은행 분야는 홍콩 상하이뱅크 소매금융대표 김혜근 동문('74 주생활학과 입)이, 27일 국제금융분야는 (주)블루나일 파트너스 사장 윤여진 동문('78 경제학과 입)이, 6월 3일 국제기구 전문요원분야는 우리 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준기 교수(국제통상제도 전공)가 각각 강연을 한다.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학생처와 총여학생회는 우리 대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2일과 29일 과학관 111호에서 '사랑의 방정식'과 '성, 그 깊고도 기쁜 이야기'의 주제로 내일신문 <아우성센터>김성아 기획교육실장이 특강을 진행하였고, 4월 2일 논지방에서는 '혼전의 성'이란 주제하에 우리 대학교 간호대학 모성간호학교실 장순복 교수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또한 '성(性)상담교실'을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기간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간호대학 모성간호학교실과 연계하여 여학생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 습득과 올바른 성의식, 분별있는 성윤리관 확립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많은 호응 속에 생활리에 진행되었다.



여학생휴게실 전면보수

총여학생회에서 우리 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3.16~19)에서 여학생 휴게실 이용율은 25~33%로 여학생휴게실에 대한 시설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학생처에서는 시설과에 의뢰하여 논지방,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여학생휴게실, 각 대학소재 여학생휴게실 등 교내 여학생휴게실에 대해 페인트칠, 환기시설 확보, 조명보완 등 전면 보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여학생처는 이러한 시설 보수 이외에 총여학생회와 공동으로 교내 창고와 각 구청 재활용센터를 활용하여 교내 여학생 휴게실에 비치할 편안한 소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마땅한 소파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혹시 여동문님들 가정에서 소파를 바꿀 경우 한 소파를 제공해 주실 분이 계시면 여학생처(전화 361-2136)로 연락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1백14주년 무악대동제 개최

'1백14주년 무악대동제'가 신촌총학생회 주최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촌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내가 눈을 들리라'를 모토로 대학축제의 새로운 방향점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이번 대동제는 진달래 노래제, 심야영화제, 북한문화제, 퀴즈아카데미 등의 흥미있는 행사가 많이 기획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총여학생회는 대학가의 올바른 성문화 주도를 위하여 '성, 그 환상과 진실'을 주제로 각종 공연 및 토크쇼 등을 준비했으며, 酒店이 주를 이루는 대학의 축제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술없는)노천카페를 운영하는 한편 금주 금연 캠페인도 벌였다. 그리고 이 노천카페 운영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의 집에 전달하였다.

총여학생회지 '연세여성' 재발간

총여학생회의 기관지(신문)인 '연세여성'이 '96년 제 9대 총여학생회' 당시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5월 10일 제 11대 총여학생회에 의해 다시 발간되었다. '연세여성'은 총여학생회에서 일반 여학우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앞으로 이 '연세여성'을 통해 여

성의 눈으로 본 새로운 언론의 지평을 열 것을 기대해 본다. 연세여자동창회에서는 '연세여성' 재창간 축하 메시지를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다.

여자동창회 총회 '무악학사 여학생 기숙사비 내주기 운동 성공전달식'

지난 3월 13일(토) 우리 대학교 앞 랜관에서 개최된 여자동창회 총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의 한학기 기숙사비 내주기 운동으로 결실을 맺게 된 '무악학사 기숙사비 내주기 운동 성공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에는 10여명의 여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 동문 동정

- 이선애(전 아세아 여성신학 교육원 원장, '48 영문 입) 동문 5월 20일 하늘나라로 가심.
- 유송미(전 여동창회 회장, '99 정외 입) 동문 대한 적십자사 서울시 지사 여성봉사 특별자문회 위원장으로 활약. 이복에 비료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고 계심.
- 이양자 생활과학대학장은 최근 어린이 생활지도연구원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기탁했다.
- 박동순 교수(교회음악과)는 최근 KES 21세기 한국의 음악가 CD 시리즈의 하나로 "오르간 독주곡집"을 출판했다. 박동순 교수는 4월 24일 독일 함부르크, 5월 7일 뒤셀도르프, 5월 20일 프랑스 리옹 교회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졌다.
- 조혜정 동문(연세대 사회학 교수)은 지난 3월 1일부로 연세대 여성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 정문자 교수(아동, 가족 전공)는 12월 5일 우리대학교에서 열린 1998년도 한국가족치료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 **강복순** 동문(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54년 입): 본교 생리학 교실에 35년간 봉직하였으며 1999년 2월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 **이영해** 동문(70년 졸): 장녀 김진아 동창이 1999년 2월 의과대학을 졸업해 모녀동창 1호가 탄생하였다.
- **최경희** 동문(62년 입): 1991년부터 New Jersey 의과대학 방사선과 교수겸 복부 영상학 분야 책임자로 재직중인 최경희 동창이 Stephen R. Baker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복부 방사선 교과서인 '복부 방사선학(Abdominal plain film)'을 99년 2월 출판하였다.
- **양창순** 동문(서울 백제병원 부원장, 74년 입): 1999년 4월 다섯 번째 저서인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현대문화사)'를 출간하였다.
- **이경숙** 기악과 교수는 한국음악협회로부터 지난 해 12월 18일 올해의 음악가 상을 수상했다. 또한 임지선 교수(작곡과)는 제 1회 한민족 음악축전에서 관현악곡 '개벽'으로 상과 함께 1천만원의 받았다.
- **김경희** 동문(작사가)은 1월 19일 오후 6시 동문회관에서 총동문회 주최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에서 연세를 빛낸 동문으로 수상했다.
- **이연숙** 교수(73 주생활 입)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새천년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개관하고 있는 책 "유니버설 디자인(태림문화사)"을 출간했다.
- **조연희** 동문(88 국문과 입)은 진명여고 국어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 최근 은퇴, '새로운 날들의 시작(교육사 출간)'이라는 조연희

- 수필집을 발간했다.
- **이영해** (64 의과 입) 방사선 병원(신촌 로타리 소재)을 운영하는 이 동문이 지난 4월 말 '한국 여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실.
- **지순자** (57 영문 입, 전 여동창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5월 2일 오후 5시 무역회관에서 막내딸 결혼식을 치렀.
- **신갑순** (54 음악 입, 삶과 꿈 대표, 전 음악대 동창회장)동문은 5월 4일 예술의 전당에서 봄의 축제라는 주제하에 삶과 꿈 싱어즈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특히 나인용 교수 작곡, 김경희 (50 국문과 입)작사의 부활 창작곡이 발표 연주되었다.
- **허정자** (61 영문과 입)동문은 막내아들 서기돈 군의 결혼식을 5월 28일 예향에서 치루었음.
- **백일수** (치과대학 7회)동문은 아름다운 치과를 확장 개원하였다. 치과대 출신 연세대 동문11명이 함께 근무하는 종합 치과 병원이다.
- **오혜식** (55 영문과 입, 이화외국어 고등학교 교장)동문은 강남 대치동 온마아파트 단지에 '온혜감리교회'를 개척하심.
- **주순향** (61 물리 입, 여자동창회 감사)동문의 남편 정경태 교수님은 지난 2월 연세대 정년퇴임을 하심.
- **문은희** (60 교육 입, 전 백양회 초대 회장)동문은 큰 아들 박한일 군의 결혼식을 작년 6월 23일에 영국에서 치루심.
- **신동식** (58 정의 입)동문은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으로 정년퇴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하며 성공회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심.
- **최만자** 동문(56 신학 입, 아시아 기독교여성 문화연구원 원장)은 YMCA연합회 실행위원과 성공회

- 대학 여성신학 강사로 활동하시며, 기독교 방송 오전 5시 30분 '통일로 가는 길' 컬럼을 주 1회 방송하고 있음.
- **강교자** 동문(60 교육 입, YMCA 사무총장) 부군 이종운 목사님께서 지난 9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심.
- **김희영** 동문(56 법학 입) 한국 여성사회교육회 회장으로 일하심.
- 연세여성 법조인명부**
- **김정선** (80학번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 **김진숙** (83학번 22기) 광주지방검찰청(검사)
- **이지희** (84학번 22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 **김인숙** (85학번 23기) 한미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 **유우일** (85학번 26기) 김,장,리 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 **신영재** (85학번 26기) 우방종합법무법인(변호사)
- **박정숙** (85학번 28기) 창원지방검찰청(검사)
- **곽관주** (86학번 24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 **문혜정** (87학번 25기) 창원지방법원(판사)
- **박미리** (87학번 25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 **심연수** (87학번 27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사)
- **이노공** (88학번 26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
- **하주현** (88학번 28기) 태평양법무법인(변호사)
- 연세여성 언론인소식**
- **김은라** 동문(64 영문 입, KBS 해설위원) 지난 해 말 연세 여성 언론인회 신입회장에 취임, 부회장에 유혜선(69 주생활 입, KBS 제1라디오 진행자)동문과 김혜원 (73 신방 입, Korea Herald 논설위

- 원 동문)동문이, 홍은희 동문(74 신방 입, 중앙일보 생활과학팀장)은 사무국장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힘차게 출발하였다.
- **신현숙** 동문(69 사학 입)은 대한 매일 문화특집 팀장으로 전보
- **김혜경** (75 사학 입)동문은 여성잡지 '빈'의 편집장으로 전보
- **최성자** (72 사학 입, 전 한국일보 생활부부장)동문은 현재 미국 연수중.
- **최춘애** (73 사회학 입)동문은 KBS 방송문화 연구원 방송문화 부장으로 전보
- **이종옥** (75 불문과 입)동문은 KBS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 중.
- **송영주** (80 문헌정보 입, 연세여성언론학회 총무)동문은 한국일보 문화부 차장으로 부임.
- **백지연** (83 심리 입)동문은 MBC를 퇴직하고 freelancer로 활약, 현재 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
- **강경화** (73 정의 입)동문은 국회의장 의전비서관을 떠나 외교통상부 장관실 보좌관으로 옮김. 특히 뛰어난 어학실력으로 김대중대통령 영어통역관으로 국제회의에서 활약.
- **김영희** (73 식생활 입)동문 부군 신중대(한나라당)씨가 지난 번 안양시 보궐선거에 입후보해서 안양시장으로 당선되었다.
- **임준희** 동문(연세대 음대 작곡과 강사)은 지난 3월 관현악작품 "알타이의 제전"으로 국제 현대 음악 협회(ISCM)에서 주최한 99년 세계음악제에서 당선됐다. 이 작품은 4월 12일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에서 초연되었으며, 올 9월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세계음악제 본행사에서도 공연된다.
- **김성복** (전 백양모임 회장, 54 사학 입) "서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 계시며, 서부 연합회 어린이집 원장 모임 회장으로 활동.
- **양은선** (여자동창회 문화위원, 73 사회학 입) 윤보선 대통령 자부 이신 양동문은 윤보선 대통령 생가를 기념관으로 새 단장하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등을 위해 집을 개방하고 있으며, 안동교회 여전도회장으로 활동.
- **변화순** (여성개발원 연구원) 동문 여성문제, 가정 사회학 분야의 연구발표를 하고 있음.
- **이상경** (현대리서치 소장, 75 사회학 입)정부 기획예산 위원회 산하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문형남** (64 의과 졸업) 버지니아 의과대학에서 재활의학을 강의하던 문동문이 은퇴 후 직업의학분야인 occupational medicine으로 공부하여 MPH학위를 이번 5월 졸업식에 학위를 받는다고 한다.
- 전 알부루사 회장이던 **문은희** 동문의 둘째아들 박한터군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British Academy상 Animation부분에서 신인상을 탔다.
- **최현숙** (74 불문 입)현재 원주 상지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동문이 상주대학 학생들의 금주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 **문은희** 동문(60 교육 입)아현동에 여성 상담소를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연세여동창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다.

● 편집후기

올려진 4만여 여동문들의 network 형성을 목표로, 우선 금년에 1만여 여동문 주소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백지신 본은 연락 바랍니다. 연세 여자동창회는 21세기의 연세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동문들의 활발한 전문분야 진출, 여동

문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 교환, 능력 개발, 그리고 학내의 여학생들의 성취발 사정, 여교수 진출, 그리고 불우 여학우 장학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동문이 실현되려면 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노력, 물질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남형우회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들어 냈습니다. 올려진 연세 여동문들이여!! 참여에 주십시오. 연락에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문분야를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에 주십시오!! 연세 역사의 한 축을 바꿀 우리의 염원은 언젠가 실현될 것입니다.(왕세경)

이 봄에 연세 여성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여지는 '연세 백양' 편집에 일조할 수 있었던 건 영광이었다. 픽스하고 자상하신 선배님들을 많이 뵈게 된 것 또한 행운이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 아쉽지만, "아! 나는 연세인이구나"를 새삼 가슴에 되새기며 여자동창회의 힘찬 미래를 그려본다. (이정은)

'연세 백양'을 통해서 여러 여동문들의 삶을 접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동문들의 만남의 장이 좀더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랍니다.(최유경) 연세백양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9년 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님께서 내시는 회비는 장학사업과 여동문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회비
년회비 20,000원
평생회비 200,000원 (년회비가 면제되며 분할납부가 가능함)
2. 납부방법
한빛은행 온라인 계좌
214-039871-01-001
연세여동창회

연세대학교 여자 동창회 임원명단

역대 회장			15대 현 임원		
1대	문은희('60교육)	392-4819	회 장	이순희('59생물)	337-9650
2대			감 사	주순향('61물리)	324-0744
3대	김형순('54영문)	783-4926		김소연('57간호)	537-2245
4대	신동식('58정외)	533-6675	부 회 장	정행자('60도서)	(0342)707-4990
5대	이정현('47영문)	337-7679		주애주('65영문)	792-2390
6대	석현중	(0342)703-5437	총무	박길주('62기약)	297-9991
7대	김성록('54사학)	(032)694-5469		이영순	644-7264
8대	신갑순('55음악)	318-1726	서 기	양경자('68기약)	335-6074
9대				전화숙('62사학)	(0342)713-3133
10대	임호빈('52신학)	325-2929	회 계	맹국강('60수학)	3472-8241
11대	이금영('56수학)	798-5979		하정자('62영문)	736-8844
12대	이상희('54교육)	387-1334	섭 외	김영란('73정외)	747-1268
13대	유승미(59정외)	762-1722		강경순('73체육)	447-0220
14대			출 판	이상경('75사회)	332-4340
역대 여학생 처장				왕세경('73정외)	(0331)264-1820
심지선('47 사학)	532-5866		문 화	최혜정('72영문)	383-5689
윤복자('54 화학)	361-3131			양은선('73사회)	730-6969
이양자('59 화학)	361-3118		사 업	장명('67경제)	573-5171
이은혜	361-3148			김성주('75신학)	269-8765
손경희	361-3117		법 규	김희영('56법과)	599-0090
윤선(67 식생활)	361-3119			유영희('66주생)	373-2868
이영(68 의생활)	361-3150		홍보	손정분('86영문)	365-0631
양일선('69 식생활)	361-3121		* 당연직 : 연세대학교 동문회 회장부인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제15대 이사명단

홍정혜('47 간호)	경순자('62 도서관)	김광경('67 의생활)	이희자('71 식생활)
김경희('51 국문)	최만자('62 신학)	김정애('67 주생활)	신상옥('73 불문)
최영자('55 기약)	김정아('63 기약)	김지영('67 영문)	주신아('73 의생활)
오정신('56 수학)	김명원('64 생물)	서은경('67 식생활)	김성주('75 신학)
정율순('54 의학)	김윤희('64 간호)	오창희('67 식생활)	김은영('75 응용통계)
진혜숙('56 정외)	김정자('64 간호)	이인규('67 주생활)	오성혜('75 종교음악)
지순자('57 영문)	이성자('64 성악)	이진안('67 의생활)	윤성미('75 사회체육)
김정필('59 사학)	이영자('64 식생활)	백채영('68 기약)	임준희('78 작곡)
김현선('59 생물)	최미라('64 주생활)	송하련('68 기약)	이연주('79 정외)
이의숙('59 정외)	권송희('66 의생활)	이명신('68 종교음악)	전인영('79 사회체육)
정학자('59 생물)	박태경('66 교회음악)	이영희('68 기약)	조경화('79 요업공학)
한혜경('59 사학)	최규옥('66 의학)	채현순('68 식생활)	정진희('80 체육)
최신자('60 정외)	최영희('66 주생활)	윤성필('69 주생활)	김희진('81 신방)
유의경('60 화학)	황혜숙('66 주생활)	이동화('69 의학)	지영림('82 법학)